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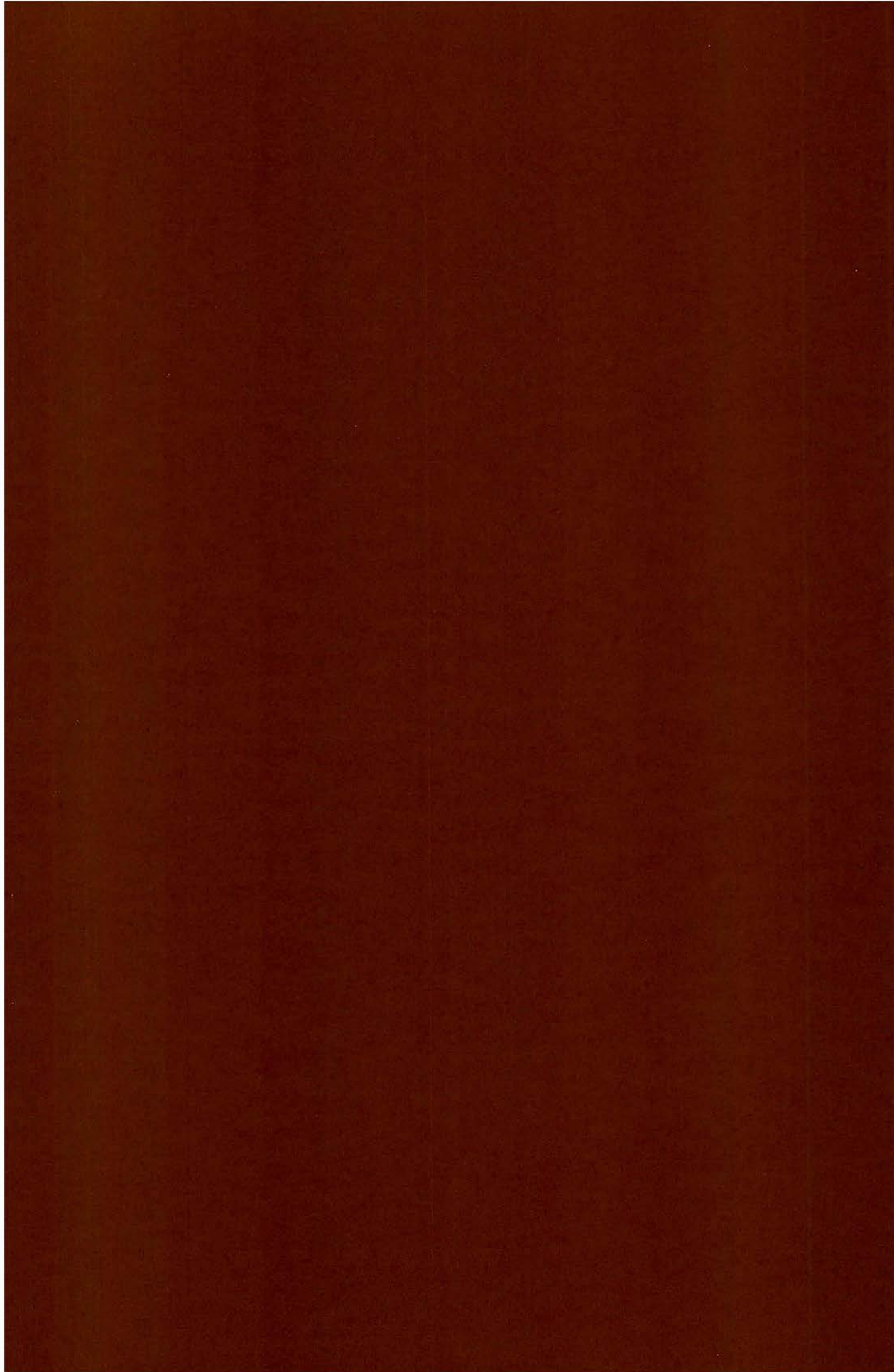
제7회 강진청자문화제 및
박물관 개관 5주년

고려청자와 종교

— 高麗青磁と宗教 —
Goryeo Celadon & Religion

2002

康津青磁資料博物館



人 事 말 씀

우리 고장 康津은 타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으로 예로부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년의 신비 속에서 천하명품 고려청자의 발상지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급 청자들을 만들었던 곳으로 당시의窯址가 188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7회 康津靑磁文化祭 및 博物館 開館 5週年을 맞이하여 고려청자에 보이는 宗教的인 의미를 밝히는 "高麗靑磁와 宗教"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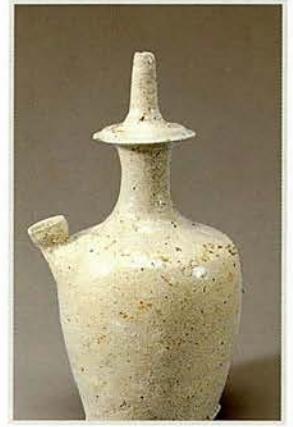
이렇듯 이번 전시에 출품된 유물들은 대부분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것들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별전이 열린다는 점에서 固有의 崇高한 文化意識을 涵養하고 自矜心을 기리는 뜻깊은 行事로 생각 합니다.

본 행사를 계기로 靑磁文化를 이해하고 昇華·發展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한편, 高麗靑磁의 研究 活性化와 文化遺産 繼承·發展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특별전을 위해 고귀한 遺物을 대여해 주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과 도록 제작에 자문을 해 주신 최건 실장님, 그리고 논고를 집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7

康 津 郡 守



전시유물 · 참고유물



1. 青磁羅漢像
高麗 13世紀, 高 37.4cm
咸平 龍泉寺 出土, 全南大博物館 所藏







2. 青磁羅漢像
高麗 13世紀, 高 20.7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東垣 寄贈品)







3. 青磁佛頭片
高麗 13世紀, 現高 9.4cm
東國大博物館 所藏





4. 青磁佛頭片
高麗 12~13世紀
現高(左) 7.0cm (右) 8.3cm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左) 光州無等窯展示館 所藏
(右)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5. 青磁佛身片
高麗 13世紀, 現高 18.0cm
東國大博物館 所藏



6. 青磁佛身片

高麗 12~13世紀, 現高 18.2cm
康津郡 大口面 出土, 個人 所藏



7. 青磁菩薩頭片
高麗 12~13世紀, 現高 6.6cm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8. 青磁羅漢頭片
高麗 12~13世紀, 現高 (左) 4.0cm (右) 6.0cm
(左) 個人 所藏
(右)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9. 塑造佛頭片

10~14世紀, 現高 (左) 8.8cm (右) 9.7cm

光州 無等山 元曉寺 出土,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10. 青磁羅漢頭片

高麗 13世紀, 現高 (左) 5.7cm (中) 8.0cm (右) 6.1cm
(左, 右) 個人所藏 (中) 東國大博物館所藏





11. 青磁佛身片

高麗 13世紀, 現高 (左) 5.2cm (右) 9.3cm
(左) 個人 所藏 (右) 東國大博物館 所藏





12. 青磁佛像片
高麗 12~13世紀, 現高 9.5cm
東國大博物館 所藏



13. 青磁佛身片
高麗 13世紀, 現高 9.0cm
東國大博物館 所藏



14. 青磁佛身片
高麗 13世紀, 現高 11.5cm
東國大博物館 所藏



15. 青磁陰刻童子文梅瓶 뚜껑 片
高麗 12世紀, 高 4.6cm
本館 所藏(曹有福 寄贈品)





16. 青磁陽印刻童子文碗片
高麗 12世紀, 現高 3.6cm
本館 所藏



17. 青磁陽印刻童子文접시 片
高麗 12世紀, 現高 2.6cm
沙堂23號 青磁窯址 調查品
本館 所藏





18. 青磁鐵畫「青林寺」銘花瓶
高麗 11~12世紀, 高 12.0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9. 青磁象嵌梵字항완
高麗 13世紀, 高 27.7cm
海東古陶磁研究所 所藏







20. 青磁象嵌梵字향완 片
高麗 13世紀, 現高 11.0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21. 青磁象嵌梵字향완 片
高麗 13世紀, 現高 7.9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22. 青磁象嵌梵語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3.5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23. 青磁象嵌梵語片

高麗 13世紀, 現高 (左上) 1.8cm (左下) 5.4cm
現徑 (右上) 7.2cm (右下) 7.5cm

(左下) 沙堂23號 青磁窯址 調查品

(左上·左下) 本館 所藏

(右上·右下) 光州無等窯展示館 所藏



23-1. 現徑 5.2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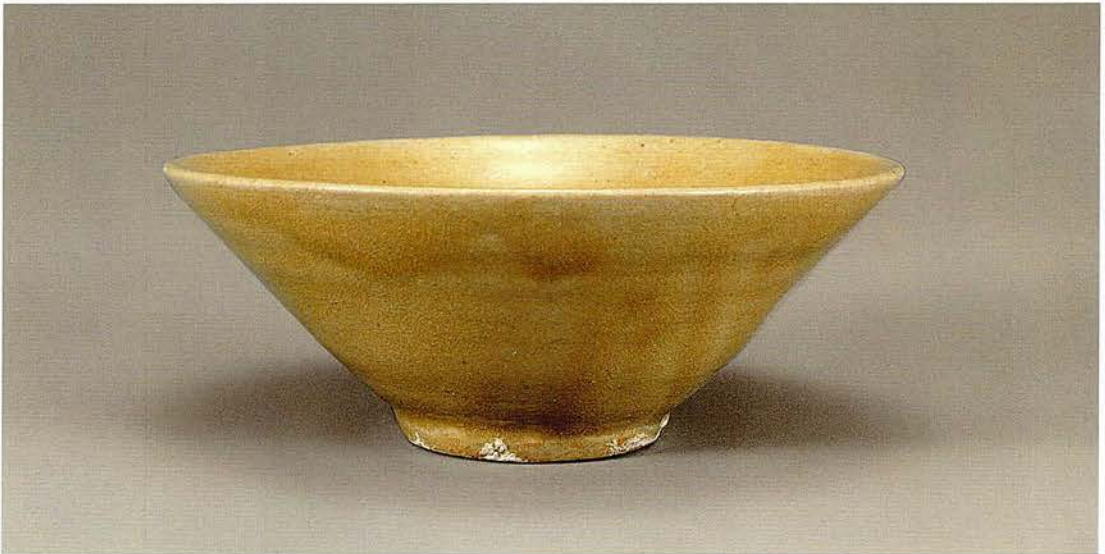
24. 青磁碗
高麗 10世紀
高 (左) 5.6cm (右) 5.7cm
個人所藏





25. 青磁碗
高麗 10世紀, 高 6.2cm
本館 所藏





26. 白磁碗
高麗 10世紀, 高 6.3cm
本館 所藏





27. 青磁碗
高麗 12世紀, 高 6.2cm
本館 所藏





28. 青磁陽刻蓮瓣文碗
高麗 10~11世紀, 高 5.6cm
本館 所藏





29. 青磁陽刻蓮瓣文碗
高麗 10~11世紀, 高 (左) 7.0cm (右) 6.4cm
本館 所藏



30. 青磁陽刻蓮瓣文大접
高麗 12世紀, 高 7.8cm
本館 所藏





31. 青磁陽刻蓮瓣文大접
高麗 12世紀, 高 4,8cm
本館 所藏





32. 青磁陽印刻蓮唐草文접시
高麗 12世紀, 高 3.4cm
本館 所藏(윤대호 寄贈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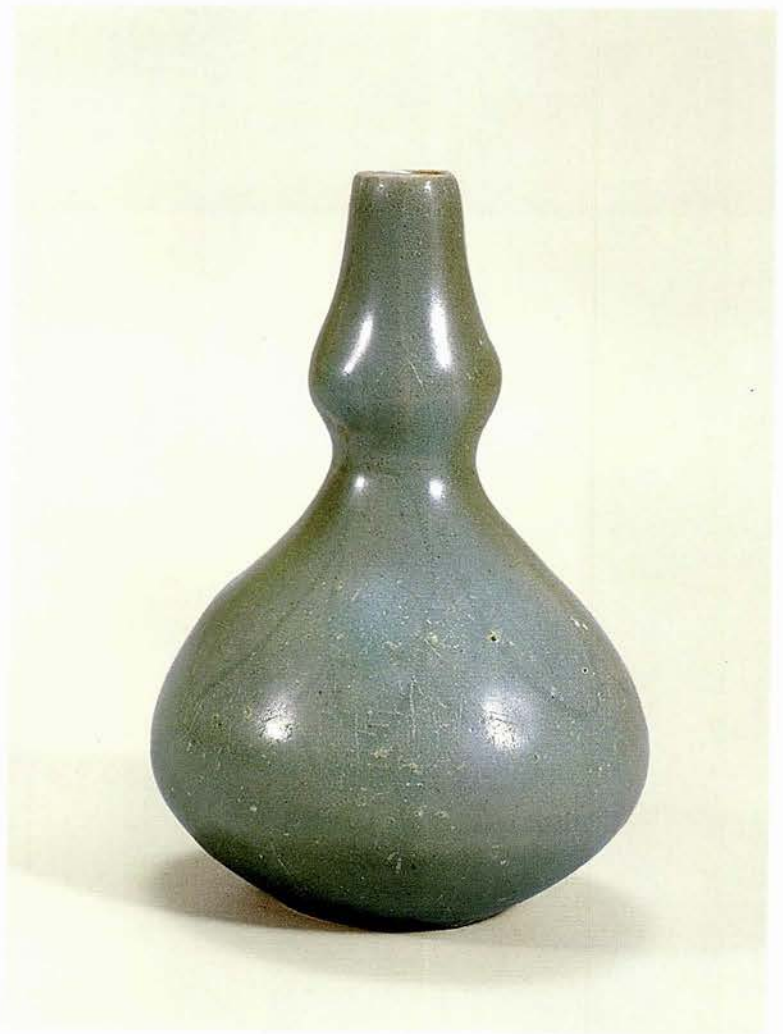


33. 青磁陽印刻蓮瓣文花形접시
高麗 12世紀, 高 2.8cm
本館 所藏(조혜경 寄贈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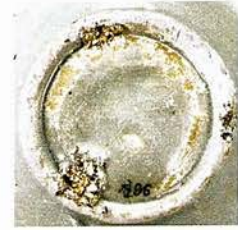


34. 青磁陽刻蓮瓣文廣口瓶
高麗 10~11世紀, 高 26.9cm
本館 所藏(이영탄 寄贈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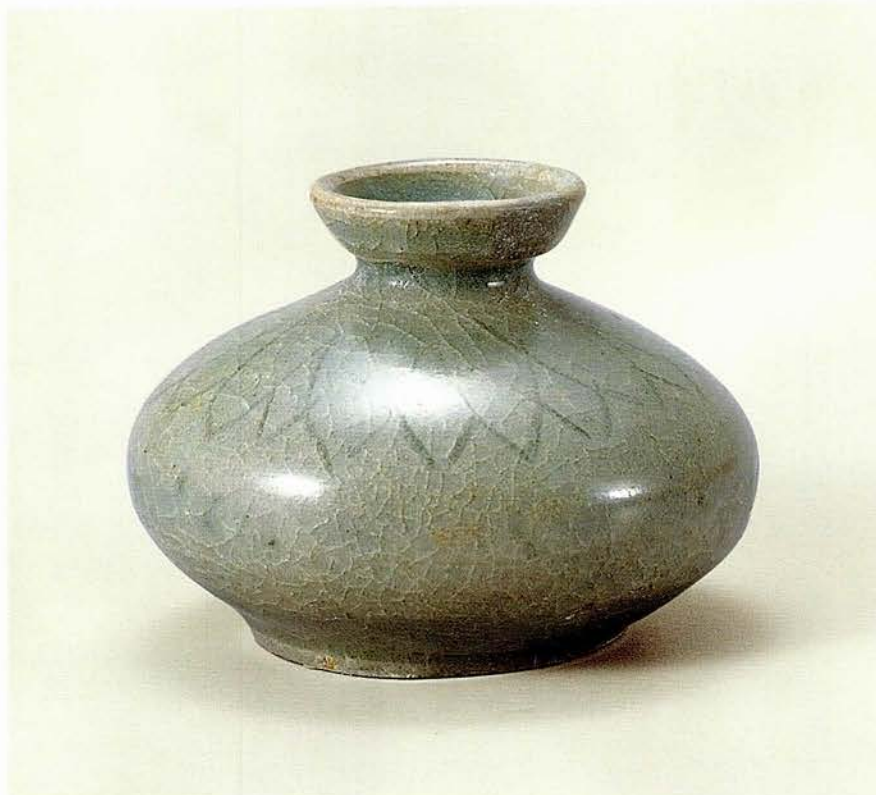


35. 青磁陰刻蓮瓣文瓢形小瓶
高麗 11世紀, 高 7.8cm
本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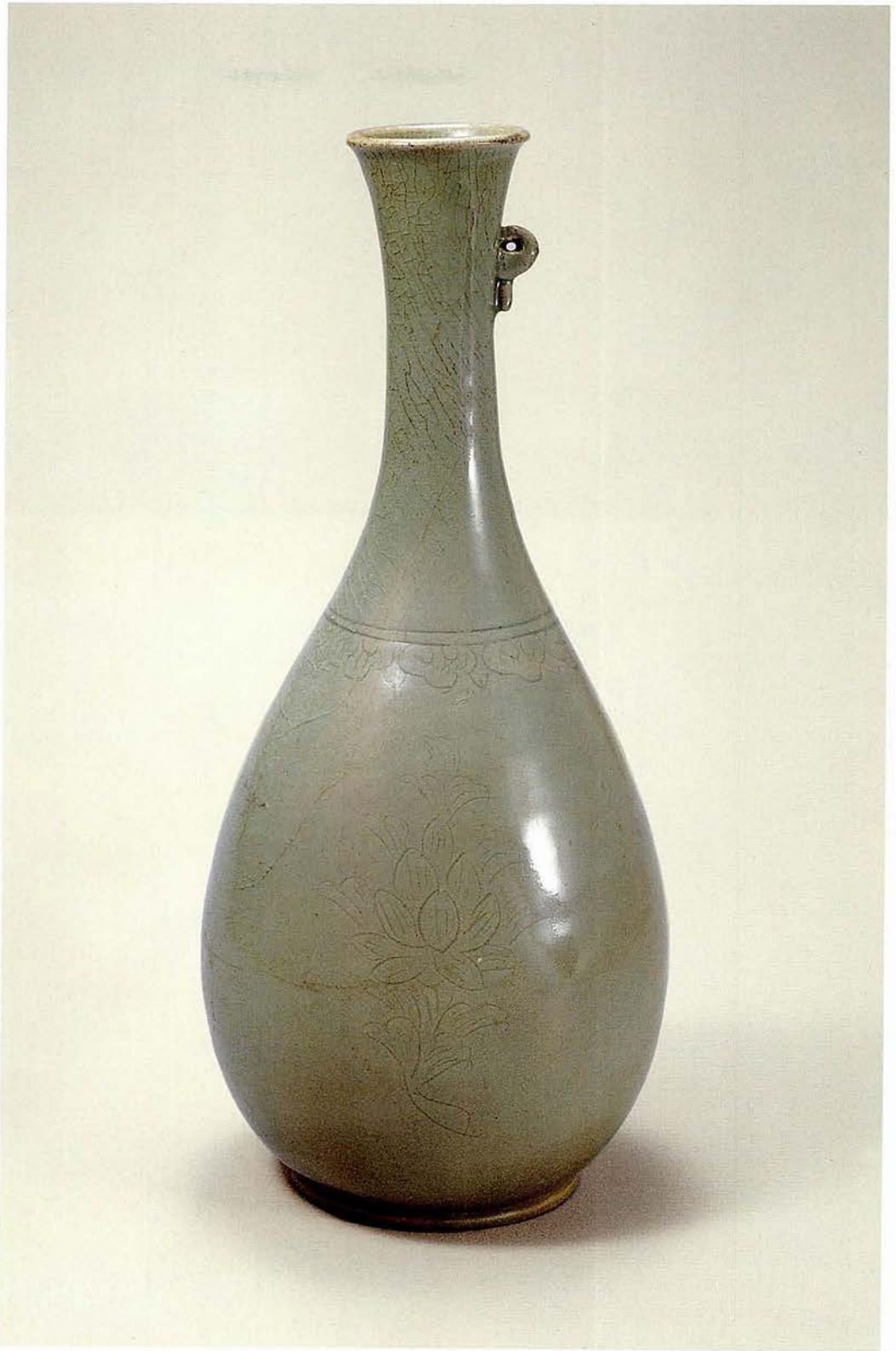




36. 青磁陽刻蓮瓣文油瓶
高麗 12世紀, 高 6.6cm
本館 所藏



37. 青磁陰刻蓮瓣文油瓶
高麗 12世紀, 高 4.8cm
本館 所藏(황성은 寄贈品)



38. 青磁陰刻蓮花文瓶
高麗 12世紀, 高 37.3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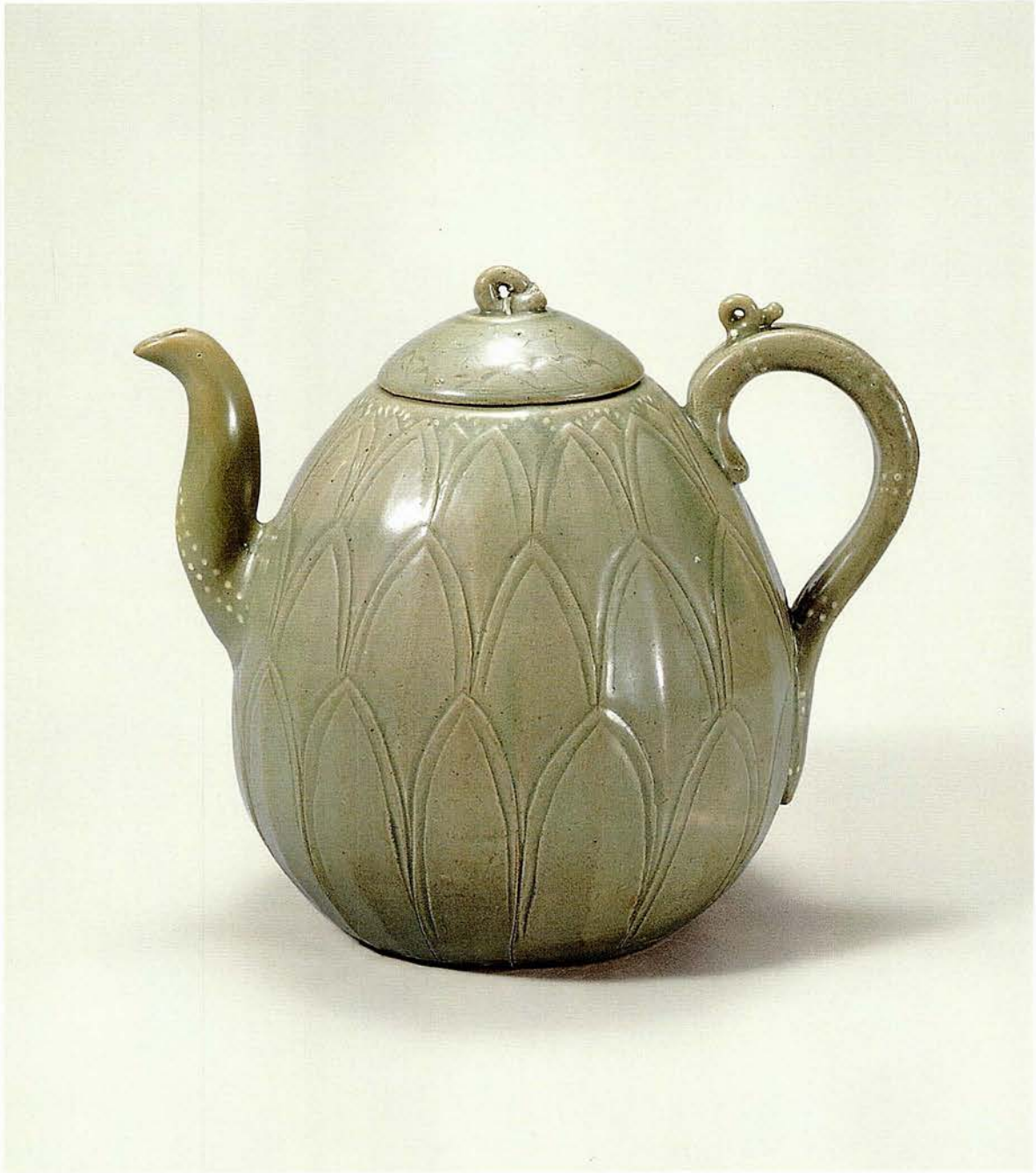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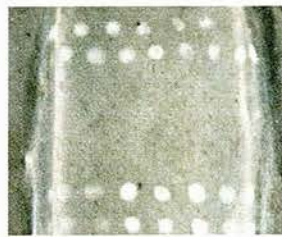
39. 青磁陽刻蓮瓣文注子
高麗 11世紀, 高 22.0cm
本館 所藏



40. 青磁陰刻蓮瓣·象嵌唐草文注子
高麗 11世紀, 高 22.5cm
本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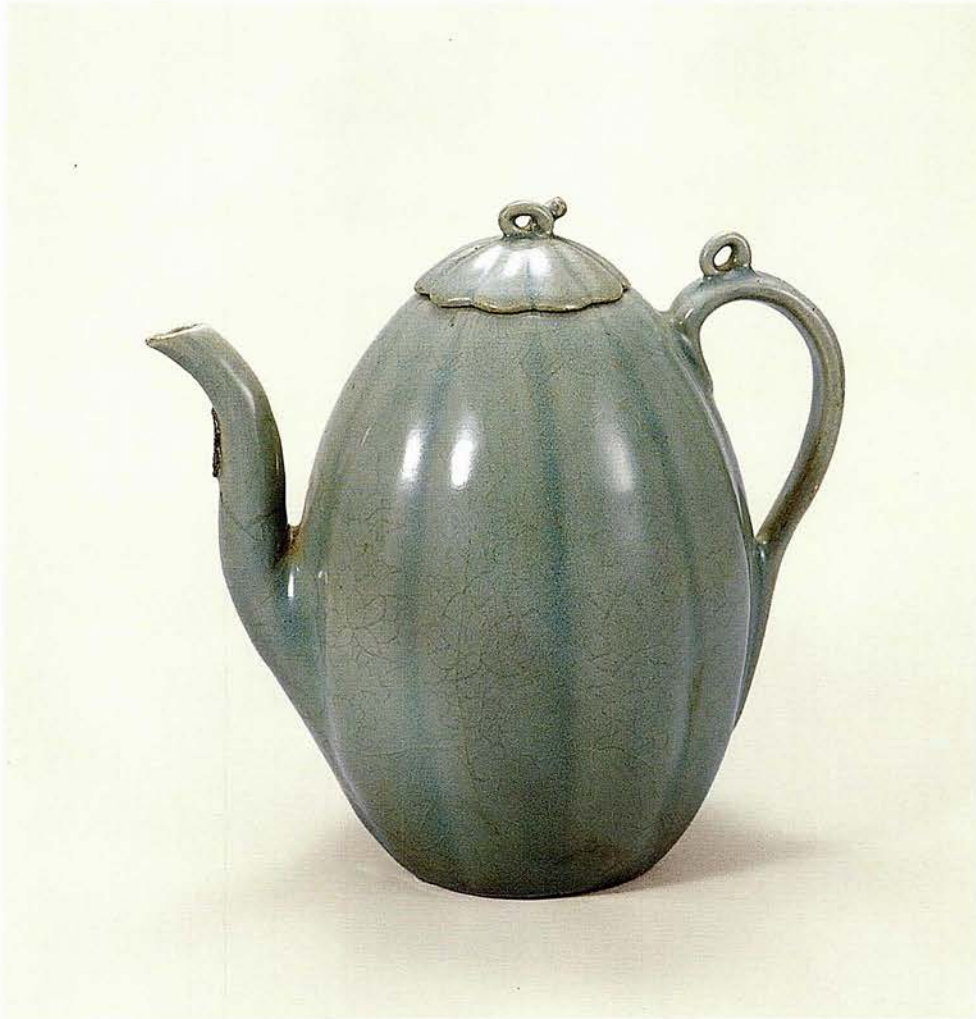


41. 青磁堆花蓮瓣文注子
高麗 12世紀, 總高 17.0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42. 青磁陰刻蓮花文瓜形注子와 承盤
高麗 12世紀, 總高 21.0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42-1. (注子) 高 18.3cm





42-2. (承盤) 高 5.9cm





43. 青磁陰刻蓮花文瓜形梅瓶片
高麗 12世紀, 現高 32.8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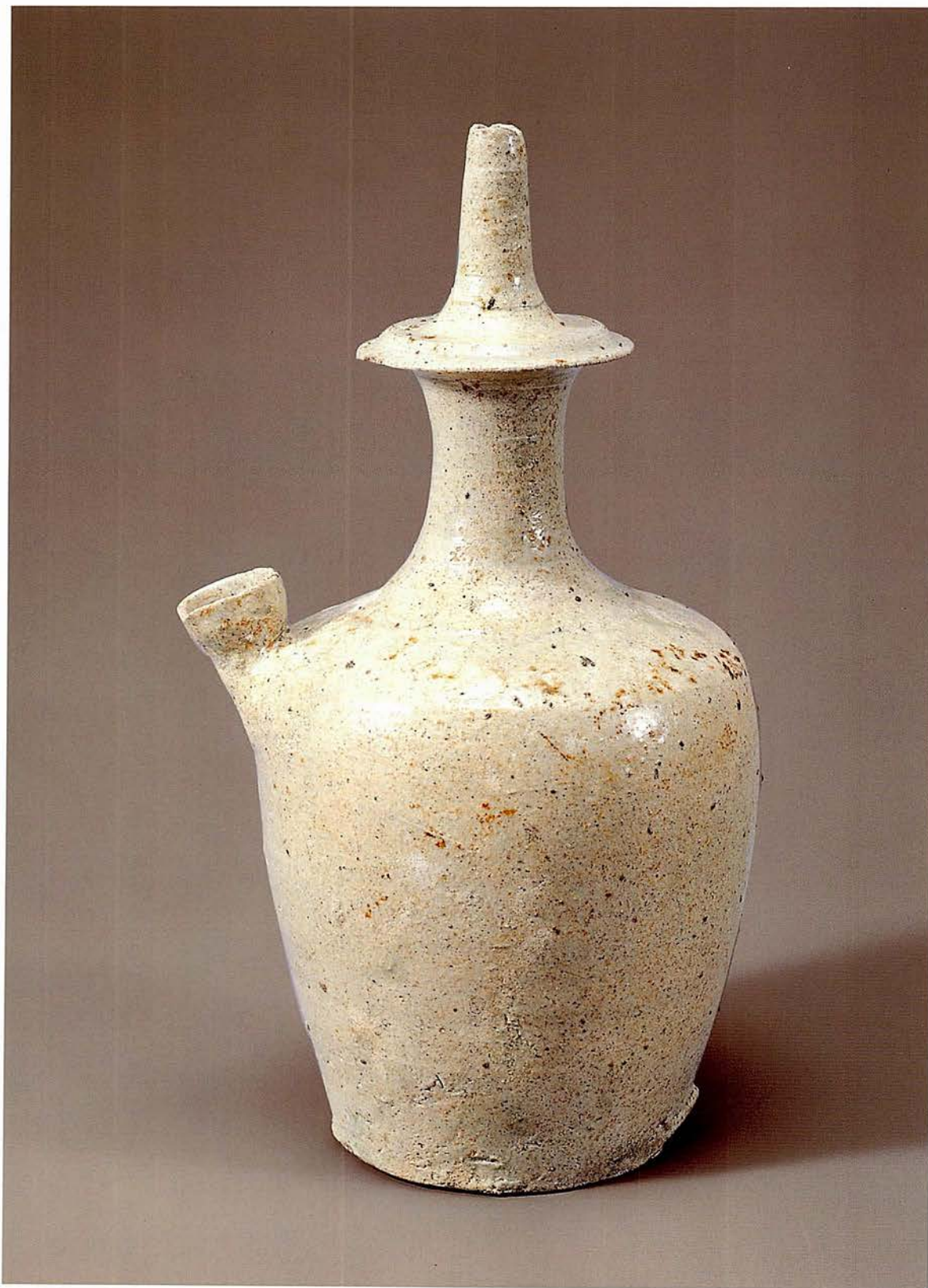


44. 青磁陰刻蓮花文梅瓶
高麗 12世紀, 高 33.3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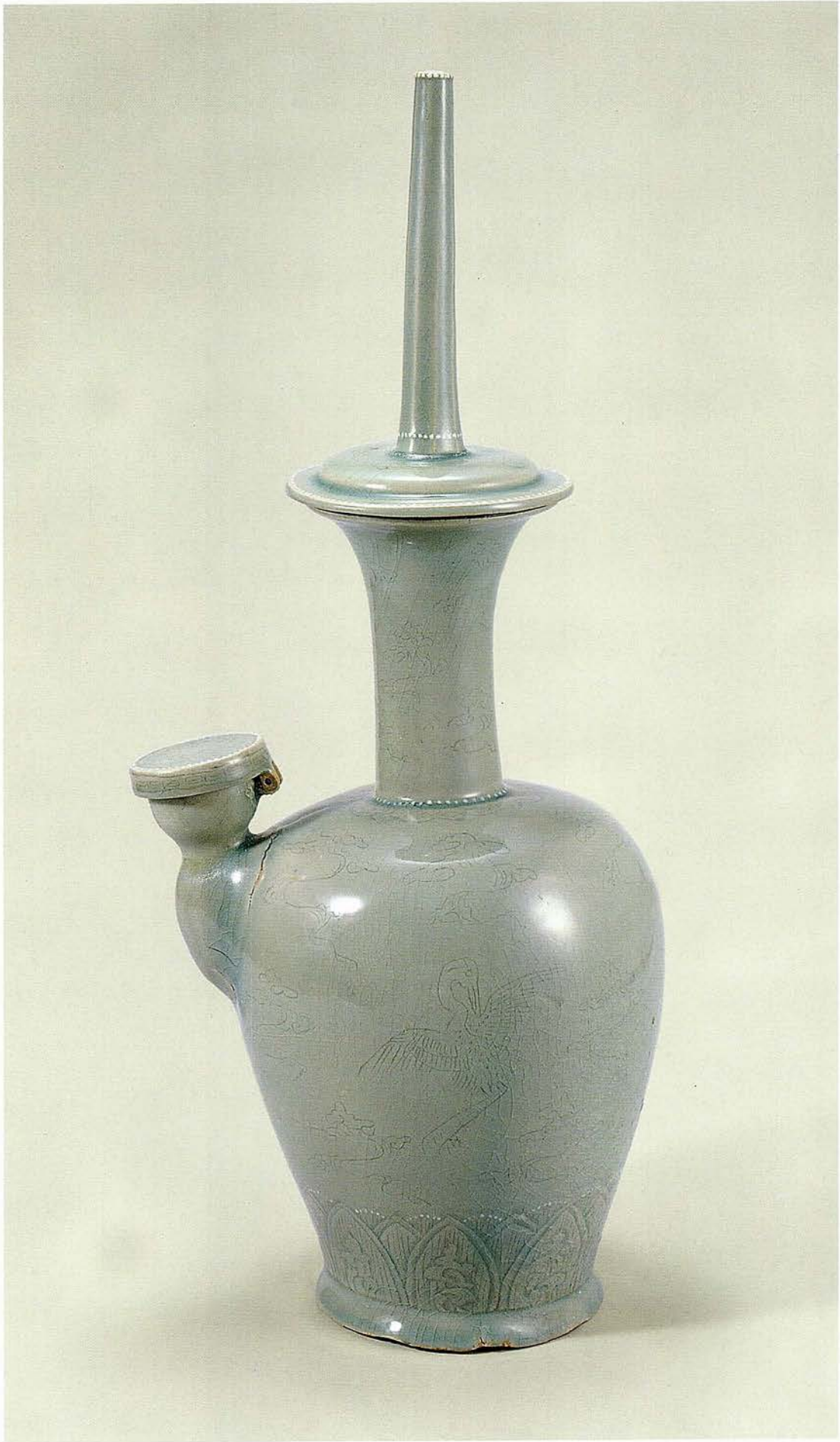
45. 青磁淨瓶
高麗 12世紀, 高 31.0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46. 白磁淨瓶
高麗 12世紀, 高 26.8cm
個人 所藏







47. 青磁陰刻雲鶴文淨瓶
高麗 12世紀, 高 44.5cm
海東古陶磁研究所 所藏





48. 青磁蓮花文花形習し 陶范
高麗 13世紀, 高 1.9cm
沙堂11號 青磁窯址 調査品
本館 所藏





1. 靑磁梵鐘片
高麗 12世紀, 現高(右下)高 9.1cm
梨花女大博物館 所藏



2. 青磁象嵌梵語접시
高麗 13世紀, 高 5.0cm
梨花女大博物館 所藏



研究論文

- 文樣으로 본 高麗佛畫와 靑磁
정우택(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전승창(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 靑磁 舍利容器的 研究
한성욱(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圖版目錄

List of Plates

文樣으로 본 高麗佛畫와 靑磁

鄭于澤(東國大學校)

I. 머리말
II. 高麗佛畫의 文樣
1. 如來圖像
2. 群集圖像
3. 菩薩圖像
III. 文樣의 共有
IV. 文樣의 役割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불화에 사용된 문양은 蓮華唐草圓文, 雲鳳文, 牧丹唐草文 그리고 寶相華文, 菊花文과 龜甲文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더욱이 고려불화는 이들 많은 종류의 문양을 한 작품에 동시에 수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표현되는 장소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문양 사용에 기본적인 규칙이 있었든지, 아니면 전통의 묵시적인 계승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여래상의 문양은 가사에는 蓮華唐草圓文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大衣에는 거의 모든 그림에 공통적으로 구름과 봉황의 雲鳳文이 표현되며, 치마에는 타원형의 연화문과 연화당초문 그리고 예는 적지만 구름무늬도 사용하였다.

보살상에 사용된 문양은 여래상보다는 좀더 다양하다. 즉 치마의 바탕무늬는 대부분 龜甲文이며 그 위에 상하대칭의 타원형 연화문을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 귀갑문을 대신하여 칠보문을 사용한 예도 보인다. 그리고 치마의 가장자리는 공통적으로 牧丹唐草文으로 장식하고 있다. 배일의 문양은 바탕에 麻葉文을 전면에 그리고 그 위에 연화당초원문, 연화원문, 그리고 화원문, 예는 적지만 운봉문을 적절한 크기로 배치

하여 표현하고 있다.

고려청자에 사용된 문양은 불화 못지 않게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雲鶴文象嵌靑磁의 표면을 가득 메운 문양의 세계를 연상하여 보면 문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청자에 사용된 문양을 잘 살펴보면 蓮華文, 牧丹文, 菊花文, 草花文, 雲鶴(鳳)文 등 적어도 중심적인 문양의 종류만큼은 고려불화의 그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제작연대가 확실한 紀年銘 불화를 중심으로 고려불화의 문양 종류와 형상적 특징을 살펴보고 비록 管見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특징이 고려청자의 문양들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언급하여 보고자한다.

II. 高麗佛畫의 文樣

1. 如來圖像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불화는 150여 점에 이르는 圖像上 여래도와 보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고려불화의 여래도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東京 根津美術館 소장의 阿彌陀如來圖이다.

根津美術館의 아미타여래도는 畫記에 의하면 權福壽의 발원으로 1306년에 그려졌으며 忠烈王, 忠宣王 등의 高麗 還國을 祈願하고 자신의 極樂往生 念願을 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여래도의 중요성은 고려불화 編年の 基準作이란 점, 그리고 화기의 내용상 宮廷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발원한 당시 최고 수준의 宮廷畫風을 지닌 작품이란 점이다.²⁾ 곧 이 불화는 당시의 최선의 불화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양도 역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1) 菊竹淳一·鄭于澤 編, 『高麗時代の 佛畫』, 시공사, 1998. 4. 이 책에서는 본문 도판의 133점을 포함하여 137점을 소개하였으나 그 이후 꾸준히 고려불화가 공개되어 지금은 150여 점에 이른다.

2) 이 작품의 화풍과 화기의 내용은 拙稿, 「日本銀行藏(東京國立博物館寄託)의 阿彌陀如來圖」, 『MUSEUM』 453, 東京國立博物館, 1988. 12, pp. 17~34 참조.

아미타여래는 寶壇위에 結跏趺坐하였고 치마를 입고 大衣를 걸치고 그 위에 다시 袈裟를 둘렀다. 문양은, 우선 가사에 두 종류가 사용되었는데 條部에는 연화당초원문이 田相部와 테두리에는 牧丹唐草文이 표현되어 있다(圖1). 가사의 뒷면에는 구름문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팔에 걸친 대의의 바탕에는 雲鳳文이 가득 그려져 있고, 그 테두리에는 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다(圖1). 치마의 문양은 菊花圓文이고 테두리에는 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禪林寺本처럼 치마에 寶相華唐草文(圖2)을, 上衫神社本과 같이 가사에 봉황문, 귀갑문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밖의 많은 고려 여래도의 문양 종류 및 배치방법은 根津美術館本과 거의 같아 가사에는 蓮華唐草圓文과 牧丹唐草文, 대의에는 雲(鳳)文, 치마에는 원형 또는 타원상의 화문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群集圖像

고려불화 가운데 군집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상은 觀經變相圖像, 彌勒下生經變相圖像과 藥師三尊12神將圖像, 阿彌陀八代菩薩圖像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화면 안에 많은 모티프가 들어있어 개개의 형체가 작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문양의 형상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阿彌陀八代菩薩圖는 비교적 문양이 다양하면서도 형상이 뚜렷한 편이다.

고려 阿彌陀八代菩薩圖를 대표할 만한 작품은 奈良 松尾寺本으로 1320년 제작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상에서 이지러짐이 없고 화질에서도 뛰어나다.³⁾

松尾寺 아미타팔대보살도의 문양을 살펴보면, 본존의 가사에는 역시 여래상 공통의 연화당초원문이, 대의에는 운봉문이 그리고 치마에는 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다.

보단은 중앙에 연화장식이 있고 제일 윗 단에 당초문을 그 바로 아래에 국화문을 배치하였다. 연화장식 아래 단에는 역시 윗 단과 형상이 거의

같은 당초문이 표현되어 있으며, 제일 아래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매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협시보살인 여덟의 보살에 사용된 문양은 더욱 다양하다. 우선 화면을 향하여 보았을 때 제일 앞 열 우측의 觀音菩薩은 상체를 감싸고 있는 흰 천의에는 주로 여래의 가사에 사용된 연화당초원문이 표현되어 있고, 치마에는 운문을 淨瓶에는 波濤文을 그려 넣었다.

관음보살과 상대적 위치에 있는 세지보살은 역시 천의에 연화당초원문을, 치마에 구름문을 그려 넣었는데 구름이 관음보살의 것보다 형상이 좀더 구체적이다. 왼팔에 걸쳐 아래로 늘어뜨린 녹색의 천의에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운봉문이 표현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왼쪽 뒤편에 위치하며 經冊을 들고 있는 보살은 가슴에 두른 띠에는 연화당초문을, 그리고 양팔에 걸친 띠에는 구름문을 그려 넣었다. 치마의 바탕에는 연화원문을, 가장자리에는 花文을 표현하였고, 寶冠에서는 菊花文을 볼 수 있다. 또한 관음보살 바로 뒤쪽의 연화가지를 든 보살은 여래형의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상의의 條部에는 연화당초원문이 田相部에는 牧丹唐草文이 그리고 가슴의 치마 윗 단으로 짐작되는 부분에는 국화문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세지보살의 오른쪽 뒤편에 여의를 들고 있는 보살은 상체를 덮고 있는 천의 그리고 양팔에 걸친 띠에는 구름문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치마에는 상하대칭에 가까운 연화원문을 사용하였고 양팔과 가슴을 두르고 있는 띠 자락에는 구름문이 가득 배치되었다. 화면을 향하여 오른쪽 제일 윗 쪽의 금강저를 바쳐 든 보살은 群靑地の 천의에 운봉문이 그려져 있다.

세지보살 뒤의 被巾狀의 地藏菩薩은 여래형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데, 條部에는 연화당초원문을 田相部에는 牧丹唐草文을 사용하였고, 頭巾의 바탕에는 과권문을 가장자리에는 국화문을 표현하고 있다.

3. 菩薩圖像

고려불화의 보살도를 대표하는 작품은 당연히

3) 이 작품의 화풍과 시기성에 관하여는 拙稿, 『高麗時代の阿彌陀八代菩薩圖-廣福護國禪寺所藏阿彌陀八代菩薩圖を中心にして-』, 『大和文華』 75, 奈良・大和文華館, 1986. 3, pp. 17~28 참조.

佐賀縣 鏡神社에 소장되어있는 水月觀音圖이다. 이 그림에는 화면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인지 현재는 일본에 수용된 이후인 1391년에 쓴 鏡神社 기증에 관한 묵서명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70년대 말에 1812년 작성된 『測量日記』에서 원래의 화기내용으로 짐작되는 관련 기록이 공개되면서 제작시기가 1310년이란 것이 밝혀졌고, 뿐만 아니라 불화의 발원자가 王淑妃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⁴⁾ 따라서 이 불화는 말할 것도 없이 대표적인 궁정화풍 불화로 當代를 대표할 만한 畫質을 지녔으며 나아가 규모에서도 현존 최대의 거대한 작품이다.

우선, 치마의 바탕무늬는 귀갑문이며, 그 위에 좌우대칭형의 타원상 연화문이, 그리고 치마의 가장자리와 두 팔에 걸쳐 아래로 흘러내린 띠에는 보상화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다(圖3). 가슴을 가로지른 띠에는 보상화당초문이 그 아래 치마의 안쪽 부분에는 牧丹唐草文이 그려져 있다(圖4). 보관에서부터 전신을 덮고있는 베일에는 雲鳳文(圖5)이, 보관에는 菊唐草文(圖6)이 배치되어 있다.

鏡神社 수월관음도의 문양 표현은 궁정화풍 불화에 걸맞게 形狀이 明瞭하고 具體性을 띄며 力動的이어서 특히 大形의 畫幅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작품 전체의 조화감과 완성도는 물론 문양의 묘사력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림으로 이 이후의 수월관음도상의 구성 형식 및 문양에도 규범이 된 듯하다.

한편, 1323년 泉屋博古館本은 鏡神社 수월관음도의 뒤를 이은 紀年銘 작품으로 베일에 운봉문이 아니고 연화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베일의 문양이 藤井齊成會有鄰館本(圖6)처럼 운봉문인 경우도 있으나 역시 長樂寺本(圖7)과 같이 연화당초문문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다.

치마의 문양은 귀갑문 바탕에 연화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圖3), 귀갑문을 생략하고 大和文華館本 또는 MOA美術館本처럼 국화원문 또는 聖衆來迎寺本처럼 연화당초문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⁵⁾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불화에 사용된 문양은 蓮華唐草圓文, 雲鳳文, 牧丹唐草文 그리고 寶相華文, 菊花文과 龜甲文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불화는 문양의 크기와 형상을 해당면의 면적과 위치에 걸맞게 조절 묘사하여 번잡한 듯 하지만 채색 등 주변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畫趣를 자아내고있는 듯 하다.

III. 文樣의 共有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靑磁는 高麗美術 나아가 韓國美術을 대표하는 분야임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고려청자, 넓게는 도자기 연구는 그러한 대표성에 걸맞게 他者와의 差別性을 강조하여 獨自性, 自律性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려는데 관심을 두고 진행하여 온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미술의 優秀性 또는 正體性을 도자미술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은 植民地史觀 產物 中 하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폭 넓게 미술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같은 시대가 낳은 다른 동격의 미술 분야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다. 즉, 고려시대는 청자이외에도 當代 미술의 정체성을 잘 전하는 佛敎繪畫와 佛敎彫刻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근년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하였다.⁶⁾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浮屠나 銅鐘 등 건축, 금속공예 등 전 분야에서 前後時代와는 취향을 달리하는 완성도 높은 미술을 생산해 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자를 더 이상 고려를 대표하는 미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작한 수량이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과 수요자층이 귀족 중심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당시의 미술활동과 미술경향을 주도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불화는 비록 도자와는 재질은 물론 제작방법,

仁大學校傳統文化研究所, 1996. 12, pp. 19~47 참조.

6) 고려불화의 연구 상황 및 작품에 관하여는, 菊竹淳一·鄭于澤編, 『前掲書』(註1)참조. 그리고 고려시대 佛敎彫刻에 대하여는 鄭恩雨, 『高麗後期 佛敎彫刻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 請求論文, 2001. 12 및 同氏,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28·229 합집호, 2001. 3, pp. 5~37을 참조.

4) 鏡神社의 수월관음도에 관하여는, 平田寬, 「鏡神社所藏楊柳觀音畫像再考」, 『大和文華』 72, 1983. 12, pp. 1~14 참조.

5)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형식과 화풍에 관하여는 拙稿, 「李壑所藏 水月觀音圖의 表現과 技法」, 『丹蒙文化研究』 창간호, 龍

용도, 수용태도 등 미술 양식상 결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지금까지도 兩者의 비교 고찰을 통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미술은 표면을 장식하는 意匠, 즉 문양에서만은 분명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양자가 공유하였던 중심적 문양의 역할과 형상적 특징 등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고려불화의 문양 가운데 蓮華唐草圓文(圖8, 9, 18)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사, 치마 그리고 베일 등 가장 폭 넓게 사용된 대표적 문양이며 형상 또한 다양하다. 특히 이 蓮華唐草圓文은 다른 문양과는 달리 그 형상의 변화 추이만으로도 불화의 제작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고려시대 13·14세기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된 문양이며 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양은 현존 예로 볼 때 중국은 물론 일본의 어느 시대 어느 종류의 불화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는 고려불화의 독자적인 문양이다. 따라서 蓮華唐草圓文이 표현된 불화는 고려시대 13·14세기에 속하는 그림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만큼 이 문양은 국적 판별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⁷⁾

지금까지 蓮華唐草圓文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앞선 시기의 중국불화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管見만으로 그저 고려 화가들이 고안해낸 고려불화만의 독창적인 문양 정도로만 여겨왔을 뿐이다.⁸⁾ 그러나 이 문양은 불교도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 살펴보면 12세기 고려청자에서 아주 유사한 형상의 문양을 찾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靑磁陰刻蓮唐草文梅瓶과 靑磁透刻蓮華文베개는 연화당초문이 施文된 많은 청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 매병과 베개의 연화당초문(圖10, 11)은 단일 개체로서 윤곽으로 규정된 불화의 문양(圖8, 9)과는 형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청자의 경우는 표면 전체를 단일 문양으로 장식하고자 펼쳐진 모습으

로 표현하였기 때문으로, 문양의 기본 구성 의도는 양자가 상통한다고 보인다. 이 점을 전제로 한다면, 14세기 고려불화에 보이는 연화당초원문의 원류는 시기적으로 앞선 청자 문양에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13세기 이전의 고려불화 문양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현재 그 원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佛畫師들이 동일 귀족 취향의 청자를 의식하였고, 그 문양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평행선의 안 쪽 공간에 양옆으로 펼쳐진 듯한 형상의 唐草文은 고려불화와 청자가 공유하였던 또 하나의 문양이다. 물론 당초문은 조형미술품에 다양한 형상으로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의장이기 때문에 양자만의 공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형상의 면에서는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려불화의 당초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대의나 천의의 가장자리 또는 보살의 띠 자락 등에 사용되었다. 그 형상은 물론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圖1과 圖12, 圖18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골격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지만 세부의 묘사는 역동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유려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형상의 당초문은 청자암막새기와의 당초문(圖13, 14)을 비롯하여 口緣部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圖15).

구름문은 고려불화와 청자가 공유하였던 또 하나의 대표적 문양이다.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래의 대의와 보살의 천의에는 구름과 봉황이 세트가 되어 표현된 예가 적지 않다(圖1, 5, 6). 마찬가지로 구름문은 특히 象嵌技法이 청자에 적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鶴과 결합하여 표면 장식의 중요 모티프로 사용되었다(圖15, 15-1). 이렇듯 양자에 있어서 구름문은 중요한 장식문양이며 비록 현재의 도자 편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기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형상만큼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2세기 이후 보편적 문양으로 자리잡은 청자의 운학문은 고려불화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려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봉문은 청자에서 볼 수 없었고, 도자 편년상 13

7) 연화당초원문에 관하여는 拙稿, 「前掲論文」(註3) 및 同, 「築前善導寺の地藏菩薩圖」, 『美術史』122, 日本美術史學會, 1987. 3, pp. 110~125 참조.

8) 拙稿, 「高麗佛畫의 圖像과 아름다움: 그 表現과 技法」, 『高麗時代의 佛畫』, 1997. 3, pp. 29~30 참조.

세기가 되어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고려불화 보편의 운봉문이 청자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존 고려불화와 근접한 시기인 13세기 후반이며 형상 또한 유사하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圖5, 16). 청자에 운봉문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원인이 불화의 영향인지 아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혀 다른 미술 장르이지만 문양은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고려불화와 청자의 문양의 공유를 보여주는 또 하나는 국화문이다. 국화문은 물론 고려불화의 중심적 문양은 아니었지만 역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살의 치마(圖17, 18), 그리고 보관의 장식 소재로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청자에서 국화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였던 것 같으며 그 형상도 불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이 이외에도 양자가 공유한 문양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牧丹文이다. 이 牧丹文은 문양이라는 것이 용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의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며, 불화와 청자 각자가 형상화한 牧丹文이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고려불화의 牧丹文(圖18)은 추상화된 唐草形인 반면에 청자의 경우는 抽象性은 물론 사실성 역시 적극 추구하여 형상이 매우 다양하며 이들 개개의 문양들은 器形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IV. 文樣의 役割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려불화와 청자는 기능 그리고 제작태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심 문양을 공유하고 있었다. 물론 양자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공유라 하여도 空間的일 뿐 時間的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미술 장르,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문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저 양자가 귀족적 취향의 미술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상식적인 견해 이상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아마도 불

화와 청자의 문양 공유 원인의 규명은, 당연한 듯 여겨지던 고려시대 후기 불상과 불화의 도상의 공유 또는 모티프의 상호 간섭의 상황도 이제서야 겨우 밝혀진 정도인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⁹⁾

한편, 고려불화와 청자는 비록 문양을 공유하였지만 장르가 다른 만큼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양에 대한 인식 역시 달랐던 것 같다. 우선, 문양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고려불화는 거의 전면을 각종의 문양으로 채워 넣고 있으나 視覺的으로 번잡스럽다거나 균형을 깨뜨릴 만큼 특정 문양이 과장, 편중되어 있지 않다. 즉 고려불화의 문양은 文樣 相互間 그리고 彩色과, 空間과의 有機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종류와 크기, 형상이 결정된 듯하다. 따라서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개개 문양은 個別化되어 있지 않으며 자기만을 주장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비하여 청자의 문양은 바탕색의 단순함에 원인이 있겠지만 視覺的으로 두드러져 그 크기, 형상, 배치에 따라 작품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즉, 고려불화의 문양은 개개 자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으나 尊像의 具顯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기 때문일까, 전체에서 볼 때는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모티프 즉 부수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반면에 청자의 문양은 한 동안 허용된 공간 속에서 기형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소극적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들 문양들은 靑磁象嵌雲鶴文梅瓶이나 靑磁象嵌雲鶴文대접(圖15)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상감기법이 청자 제작에 적용되면서 자기주장이 강해졌고 主體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靑磁象嵌雲鶴文梅瓶을 비롯하여 각종 唐草文주전자(東京國立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 대접, 향아리 등의 문양은, 보는 사람에 따라 느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주어진 공간에서 이탈하여 문양의 본래적 역할을 넘어선 듯하며, 이로 인하여 작품의 윤곽이 애매해지는 역기능을 가져온 듯하다.

반면에, 또 다른 靑磁象嵌雲鶴文梅瓶(國立中央

9) 高麗後期 佛教彫刻과 佛畫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鄭恩雨, 『前掲書』(註6) 참조.

博物館)이나 雲鶴文대접(圖15)은 문양의 전혀 다른 역할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의 공간 즉 기면은 운학문을 묘사하기 위한 회화의 화폭처럼 느껴질 만큼 문양 배치와 형상 크기의 의도적이며, 문양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간이 확대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러한 두 가지의 현상은 현재의 도자 편년으로 볼 때 同時期에 공존하였으며 양자 모두 시기가 내려올 수록 기면이 장식적이고, 문양은 형식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器面의 장식은 상감기법에 辰砂彩 技法이 추가되면서 靑磁象嵌銅彩牧丹文梅瓶(圖19)처럼 보다 繪畫의으로, 한편으로는 靑磁象嵌銅彩葡萄童子文瓢形주전자·받침처럼 보다 장식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처럼 제작시기가 내려올 수록 표면을 장식하려는 의식이 강해지고 문양 자체도 형식화되는 경향은 고려불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¹⁰⁾

다음은 문양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고려불화와 청자의 문양은 공유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수의 종류가 일치하나, 연화당초원문, 국화문 그리고 牧丹文과 국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형상의 면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양자의 시기적인 차이, 수용자층의 선호 정도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문양의 기능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화와 청자의 구름문과 봉황문의 형상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두 모티프가 植物 素材 문양과 달리 극단적인 디자인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마지막으로 문양을 통하여 고려불화와 청자의 편년 또는 서로간의 영향관계는 밝혀낼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역시 이미 언급하였듯이 고려불화의 경우 적어도 중심 문양인 연화당초원문의 형상적 특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편년이 가능하다. 반면에 청자의 경우는 管見에 의하면 편년의 대상이 될 만큼 일관되게 사용된 문양이 없는 듯하며, 따라서

형상적 특징만으로 제작시기의 추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이는 불화와 청자의 제작 방법, 즉 붓을 사용하며 一回 單品만 제작이 가능한 불화와 대량생산에 따른 規格化를 지향한 청자와는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미술 즉, 회화, 조각, 공예 등 외적 요인의 수용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에 관하여는, 청자는 성격상 불화보다 외적 영향을 빨리 그리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상당수의 문양을 공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불화에 청자에서 흔히 보이는 운학문이 보이지 않으며, 반대로 청자에는 고려불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봉문이 겨우 13세기에 들어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자 편년으로 보면 14세기뿐인 고려불화의 운봉문은 청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운학문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운봉문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다. 과연 고려불화의 운봉문의 역사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더불어 운봉문이 등장하는 청자의 편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불화와 청자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애호하였던 운봉문의 상징성에 관하여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V. 맺음말

적어도 근세 이전의 미술에는 시기와 분야가 달라도 서로 간의 간섭은 꾸준하게 행하여졌다.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時空을 넘나들었던 것이 文樣의 世界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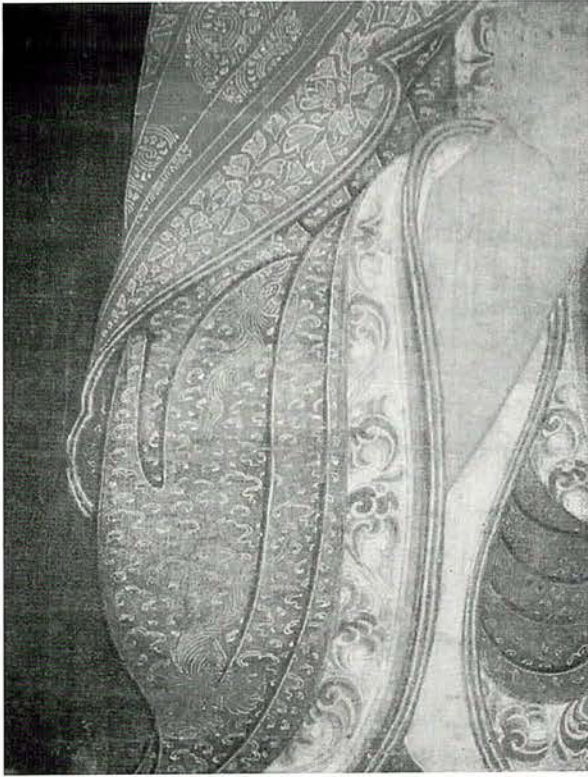
高麗佛畫와 靑磁는 어찌 보면 문양의 寶庫이며 당시로서는 문양의 競演場이고 새로운 문양의 登用處이며 시험무대였는지도 모를 만큼 다양한 문양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양자는 同一 時代이며 귀족적 취향 아래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제작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서로의 관련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

10) 高麗佛畫의 畫風의 변화에 관하여는, 拙稿, 「前掲論文」(註3), 日本美術史學會 및 同, 「前掲論文」(註7), 大和文華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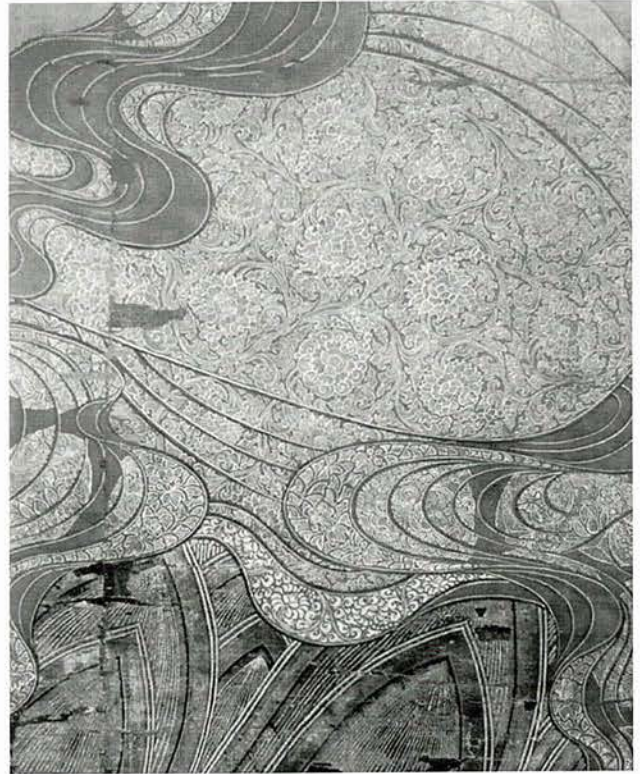
러한 의도에서 시도되었으나 필자의 청자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규명을 위한 아무런 단서조차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고려불화와 청자가 일부이기는 하나 문양을 공유하며 그 종류가 무엇이고 문양의 역할은 어떠한가 정도를 지적하였다는데 위안을 삼고 싶다.

고려불화는 물론 청자 역시 중국을 떼어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문양도 마찬가지여서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극히 일부의 문양을 제외하고는 이미 중국의 同類의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청자의 문양을 포함한 器形 등의 검토에는 중국의 宋·元만이 아니라 고려와 밀접하였으나, 그 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遼와 金의 도자를 비롯한 미술경향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미술에서는 遼·金美術의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고려불교미술의 상황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¹¹⁾ 적어도 고려미술의 全容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시대 다방면에 걸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1) 遼代 불교조각에 관하여는 鄭恩雨, 「遼代仏教彫刻의 研究 I」, 『미술사연구』 13, 1999과 「遼代仏教彫刻의 研究 II」, 『미술사연구』 14, 20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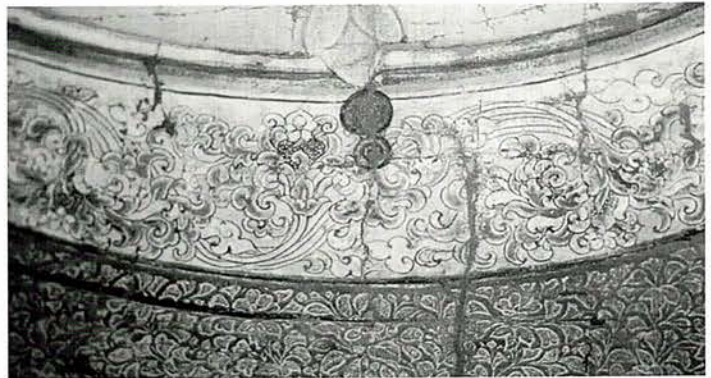
1. 阿彌陀如來圖(부분), 1306년, 根津美術館 所藏



2. 阿彌陀如來圖(부분), 14세기, 禪林寺 所藏



3. 水月觀音圖(부분), 1310년, 鏡神社 所藏



4. 水月觀音圖(부분), 1310년, 鏡神社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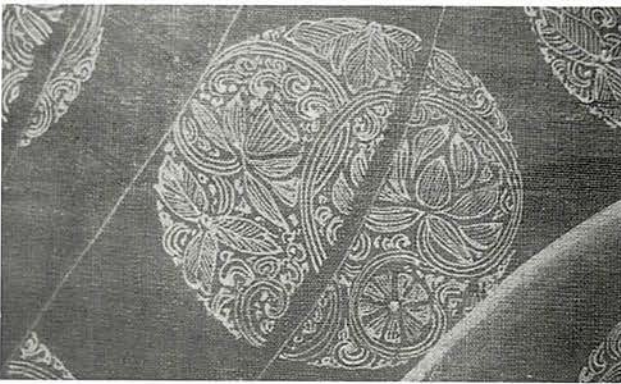
5. 水月觀音圖(부분), 1310년, 鏡神社 所藏



6. 水月觀音圖(부분), 14세기, 藤井齊成會有鄰館 所藏



7. 水月觀音圖(부분), 14세기, 長樂寺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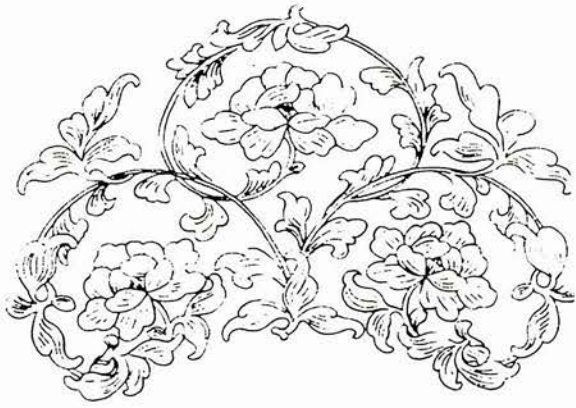
8. 阿彌陀八代菩薩圖(부분), 14세기, 德川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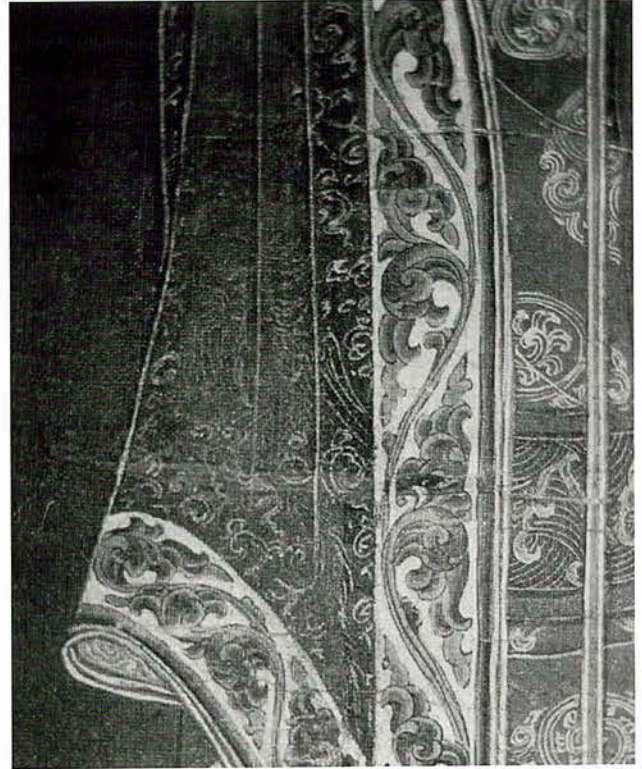
9. 阿彌陀八代菩薩圖(부분), 1320년, 松尾寺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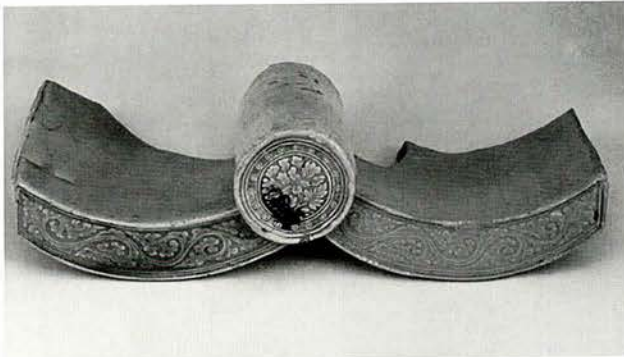
10. 青磁陰刻蓮唐草文梅瓶,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1. 青磁透刻蓮花文베개,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2. 地藏菩薩圖(부분), 14세기, 메트로폴리탄박물관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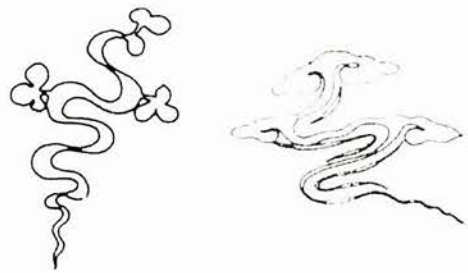
13. 青磁陽刻唐草文막새기와,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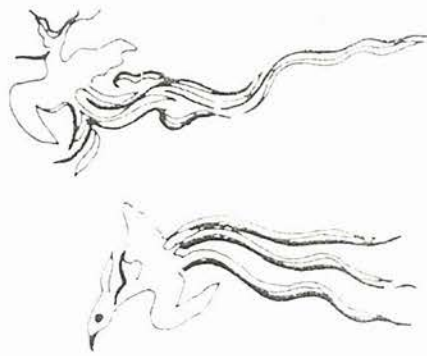
14. 青磁陽刻唐草文암막새기와,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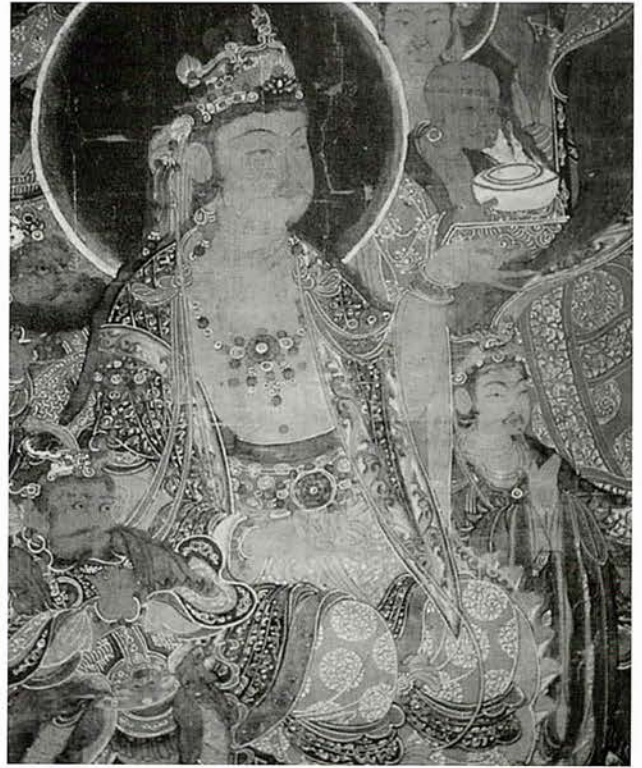
15. 青磁象嵌雲鶴文대접,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5-1. 青磁象嵌雲鶴文瓶,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6. 青磁象嵌雲鳳文대접,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7. 彌勒下生經變相圖(부분), 14세기, 知恩院 所藏



18. 地藏菩薩圖(부분), 14세기, 善導寺 所藏



19. 青磁象嵌銅彩牧丹文梅瓶, 12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전승창(호암미술관 선임연구원)

I. 머리말
II. 『高麗圖經』의 陶爐 檢討
III. 彫刻裝飾 香爐의 祖型
1. 자기향로와 금속기의 관계
2. 중국 청자의 영향
IV. 窯址出土品과 遺物의 裝飾
1. 요지출토 현황과 유물의 특징
2. 조각장식 소재의 검토
3. 표면장식의 구성과 변화
V. 製作時期의 問題
VI.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청자 중에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일반적인 용기 이외에 당시의 국교였던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다수 알려져 있다. 바릿대·골호(骨壺)·사리기·향로·정병·불보살상(佛菩薩像)·나한상·종(鐘) 등 불교와 관련된 청자는 다양한데, 이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향로이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향로는 향완형(香碗形)·방형(方形)·정형(鼎形), 그리고 동물이나 칠보 등 조각장식이 있는 형태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오리나 원앙·사자와 같은 동물 모양의 장식이 있는 향로는 조각과 유색(釉色)·장식·구조 등에서 12세기 청자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로 관심을 끌어들였다.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는 뚜껑과 몸통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원반모양의 뚜껑은 윗면에 동물 모양의 커다란 장식을 두어 그 입을 통하여 향이 피어오르도록 만들어졌다. 몸체는 원통형으로 안쪽면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윗면에는 뚜껑을 받쳐주는 낮은 턱과 폭이 넓은 전이 있으며, 바닥에는 몸체를 받치고 있는 피수 모양으로 장식된 세 개의 다리가 있다. 따라서 청자로 제작된 다른 불구나 일반적인 종류의 그릇과는 형태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청자향로는 고려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지만, 시기에 따라 종류와 형태, 장식 등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청동 등 금속으로 제작되던 향로를 모본(模本)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중국 자기의 영향으로 형태와 장식소재 등에서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며, 기형이나 장식기법·장식소재·유색 등에서 고려청자의 특징을 살려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알려져 있는 유물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청자향로뿐만 아니라 고려청자의 성격이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자향로는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한 종류로서 외형상의 특징만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왔을 뿐, 유물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 역시 12세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종류로 알려져 있지만, 문헌기록이나 조형·장식소재와 구성·제작지 등에 대한 검토나 고찰은 시도되지 않았다.

본고는 조각장식 향로와 관련된 기록과 유물·요지(窯址) 출토품 등을 검토하여 유물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금속기나 중국 청자와의 관계 및 제작시기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고찰을 위하여 서궁의 『高麗圖經』에 보이는 관련기록을 검토하여 향로의 구조적인 특징과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유물의 형태를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련기록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제작배경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고려의 금속향로 및 중국 청자향로와 비교를 시도하여 향로의 조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현재 알려져 있는 몇 점의 향로는 세부의 형태와 장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지 출토품과 출토상황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로 및 일상용기를 만들던 강진 용운리(龍雲里) 요지(窯址)의 장식경향이나 제작품이 중국 요주요(耀州窯)의 청자와 유사하여,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는 모두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요지의 운영시기와 출토품 등을 고려하여 제작시기에 대하여 추정해 보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에 제작된 유물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高麗圖經』의 陶爐 검토

고려시대의 기록 중에서 당시의 문물(文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高麗圖經』이다. 책의 본래 명칭은 『宣和奉使高麗圖經』이며, 1123년(인종1) 중국 송나라의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궁(徐兢, 1091~1153)이 귀국 후 저술하여 1124년에 송의 휘종(徽宗)에게 받친 것이다. 서궁이 보고 들은 고려의 문물을 글로 적고 그림을 그려 설명한 것으로 모두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부분은 정강(靖康)의 난 때 없어지고 현재는 기록만이 전하므로, 책에 서술된 특정한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하는 유물이나 유적의 검토를 통하여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고려도경』에는 서궁이 보았던 다양한 종류의 기명(器名)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데,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기물(器物)의 명칭과 함께 형태와 특징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청자향로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사자모양의 향로[狻猊出香] 역시 비색(翡色)으로, 위쪽에는 앉아 있는 짐승이 있고 그 아래에 양련(仰蓮)이 받치고 있다”고 하는 卷第三十二 器皿三 陶爐條의 기록이다.¹⁾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맨 위쪽에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 이것을 밑에서 연꽃장식이 받치고 있는 형태로, 표면에는 비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는 ‘도로(陶爐)’ 즉, 청자로 제작된 향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궁이 보았던 청자향로의 그림이 전하지 않아, 실물의 형태를 추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청자향로는 형태에 따라 크게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종류가 향로의 뚜껑 윗면에 원앙(鴛鴦)이나 기린(麒麟)·용(龍) 등을 조각하여 장식한 것이다. 이러한 향로는 동물모양의 조각장식과 원통형의 몸체, 그리고 이것을 받치고 있는 괴수(怪獸) 모양으로 장식된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향로는 속이 깊고 바닥이 편평한 원통형의 몸체 안쪽에 향을 피운 후, 뚜껑을 덮으면 윗면에 장식된 동물의 입을 통해 연기가 빠져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동물이 향을 토해내는 듯한 모양으로 대표적인 예가 사자장식이 있는 청자향로이다(圖1).

이 향로는 뚜껑 윗면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는 점과 포효(咆哮)하듯 벌리고 있는 사자의 입을 통해 향의 연기가 퍼져 나오도록 고안된 점, 그리고 1146년 고려 인종의 장릉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최상질의 청자와 흡사한 비색의 유약이 씌워져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1123년 서궁이 보았던 ‘산예출향(狻猊出香)’과 유사한 작품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²⁾ 그러나 사자장식 향로는 ‘陶爐條’에 보이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조각 밑에 연꽃장식이 있는 예가 알려져 있지 않아 기록과 유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사자조각이나 향이 배출되는 구조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뚜껑의 아래 부분 혹은 몸체를 이루는 부분에 연꽃이 장식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모양의 향로일 가능성이 크다.

서궁의 기록에 보이는 ‘사자’와 ‘연꽃’ 장식에 주목하여, 향로의 사자장식과 <靑磁透刻七寶香爐>의 꽃 모양을 조합한 새로운 형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圖2). 칠보향로와 같이 꽃이 화려하게 장식된 몸체의 윗면에 사자장식이 있는 뚜껑이 씌워진 향로를 묘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³⁾ 이러한 주장은 사자와 연꽃장식이 모두 갖추어져 『고려도경』 속의 기록과 근접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칠보향로와 같은 몸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중앙의 연꽃 이외에 이 향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꽃 모양의 받침이나 바닥의 토끼장식도 기록에 등장했어야 할 것이다. 기명조(器皿條)에 기록된 기물(器物)은 중국의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형태의 묘사를 생략하고 용도 혹은 기능을 부각하여 서술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예출향(狻猊出香)’의 경우에는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것이 가장 정절(精絶)하다”고 할 정도로 찬사를 보내는 한편, 나아가 중국의 “월주(越州) 고비색(古秘色)이나 여주(汝州) 신요기(新窯器)와도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독 받침 부분의 특이한 형태와 장식의 묘사만을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맨 위쪽에는 사자가 있고, 그 밑에 양련(仰蓮)의 장식이 있을 뿐 받침 부분에는 서궁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장식이 없는 향로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검토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기록에 등장하는 양련(仰蓮)을 칠보향로의 꽃 장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第三十二, 器皿三, 陶爐. “狻猊出香, 亦翡色也上爲蹲獸下有仰蓮以承之, 諸器, 惟此物, 最精絶, 其餘, 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概相類”

2) 尹龍二, 『高麗靑瓷의 變遷』,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4, p. 118.

3) 稻垣正宏, 『宣和奉使高麗圖經(二)』, 『野村美術館研究紀要』 10, 2001, p. 57.

가 하는 문제이다. 양련은 하늘을 향해 피어 오른 연꽃 모양의 장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청자는 물론 금속기 등 공예품의 장식에 즐겨 사용되던 대표적인 소재이다(圖3). 그러나 칠보향로에 장식된 꽃잎은 측면의 모양이 톱니와 같은 촘촘한 파상선을 그리고 있어,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연잎과는 다르다. 잎의 측면이 파상선을 그리는 경우는 국화잎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며, 일본 小倉콜렉션 소장품에서는 국화잎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연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圖4).

<靑磁魚龍蓋香爐>는 뚜껑의 윗면에 장식된 어룡의 입을 통하여 향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점에서 사자장식 향로와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다(圖5). 그러나 연꽃모양의 몸체와 세장한 원통형의 기대(器臺), 연잎의 가장자리가 위쪽을 향해 반전된 원형의 받침 등 전체의 형태는 사자장식 향로와 확연히 구분되는 또 다른 종류이다. 이 향로의 형태 및 장식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 위에서 살펴보았던 서궁의 기록이다. 기록에서 묘사한 향로의 형태를 사자가 아닌 '양련(仰蓮)'을 중심으로 본다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사자를 조각한 장식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연꽃 위에 동물을 장식하는 경향은 호암미술관 소장 <金銅鏡架裝飾>과 같이 금속유물에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圖6). 경가장식에서는 맨 위쪽에 원앙이 있고 그 밑에 연꽃이 막 피어오르는 봉오리의 형태로 만들어져 어룡이 장식된 향로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꽃의 모양은 금속이라고 하는 재료와 제작방법의 특성 때문에 비롯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경가장식>에서는 연꽃 위에 구름을 타고 있는 봉황이 장식되어 있어 관심을 끄는데(圖7), 기본적인 구성은 호암미술관 소장품과 유사하지만 원앙이 봉황으로 대체된 것이나 중첩되었던 연꽃이 하나로 장식된 점 등 약간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연꽃 위에 동물을 장식하는 것은 청자나 금속기에 모두 사용되던 구성이며, 반드시 특정한 동물만이 소재로 채택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룡장식 향로의 경우 어룡 이외에도 사자와 같은 장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룡이나 사자장식 향로는 모두 12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여 향로를 보았던 1123년과 커다란 시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궁은 어룡장식 향로와 같이 활짝 핀 연꽃이 장식된 몸체에 사자장식 향로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사자가 뚜껑 윗면에 조각되어 있

던 청자향로를 보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서궁은 청자향로를 통칭하여 '陶爐'라는 제목을 붙인 후, '狻猊出香'이라는 사자장식이 있는 향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기록은 '狻猊出香'이라는 특정한 표현에 이어서 기물(器物)의 유색과 장식의 종류 및 형태 등 세부 특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狻猊出香'은 위에서 형태를 추정해 보았던 특정한 향로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향로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명칭은 이미 기록에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狻猊出香'이라는 명칭은 독특한 구조와 사자장식에 주목하여 서궁 자신이 붙인 이름인지 혹은 당시에 통용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高麗圖經』에 충실하게 '윗면에 사자를 조각한 장식이 있으며, 그 입을 통하여 향이 나오는 구조를 갖춘 향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한 조각장식과 구조가 향로의 명칭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자장식이 있는 향로의 경우, 1123년 서궁이 보았던 것과 세부 형태는 다르지만 사자장식에 향로의 구조적인 특징을 더하여 '산예출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현재 전하는 청자향로 중에는 사자장식 향로와 몸체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사자(獅子)를 대신하여 '기린(麒麟)', '원앙(鴛鴦)', '구룡(龜龍)' 등이 조각으로 장식된 작품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 이들의 명칭도 조각장식과 구조에 착안하여 '麒麟出香', '鴛鴦出香', '龜龍出香'과 같은 구체적인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III. 彫刻裝飾 香爐의 祖型

1. 자기향로와 금속기의 관계

고려청자 중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금속기의 형태와 장식을 모방하여 제작된 유물이 다수 알려져 있다.⁴⁾ 금속기를 모본(模本)으로 제작한 청자는 접시·완·탁·잔·합·병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제작시기도 고려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⁵⁾ 따라서 금속기를 모방한 청자의 제작은 특정한 종류에 한정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고려시대에 지속적으로

4) 金台現, 「高麗時代 金屬器皿의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5)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高麗の金屬器と陶瓷器』, 1991.

나타났던 제작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자향로 중에도 고려의 청동향로와 형태나 세부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금속제 향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물로 청자향완(靑磁香垸)을 들 수 있다(圖8). 몸체에 직각으로 꺾여 밖으로 벌어진 주둥이의 폭이 넓은 전, 원통형에 가까운 몸체, 원주(圓柱), 가장자리를 둥글게 다듬은 듯한 원반형 받침 등에서 금속기의 예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청동향완(靑銅香垸)과 유사하여 자기와 금속기의 영향관계를 뒷받침한다(圖9).

청자와 금속향로의 영향관계는 요지(窯址) 출토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西里) 요지에서는 20 여점에 달하는 향로 파편이 출토되었는데,⁶⁾ 이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단(二段)의 받침이 형성되어 있는 백자 파편이다(圖10). 아쉽게도 몸체와 원주 일부가 파손되어 전체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원통형의 원주와 이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은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청동향완>의 하단과 매우 유사하다(圖11). 특히, 이 백자 파편에서 주목되는 것이 독특한 모양으로 깎아낸 굽안바닥의 형태이다(圖12). 굽안바닥은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이단(二段)으로 구성된 계단 모양의 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형태는 한 단(段)으로 안바닥을 깎아주는 일상용기의 굽 형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파편의 받침 윗면과 굽의 안쪽면을 동시에 보면, 바닥의 커다란 원반 위에 크기가 더욱 작은 원반을 포개어 올리고 그 위에 원주를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바닥 안쪽 면에 계단 모양의 턱은 청동향완과 같은 금속기의 받침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작과정에서 타출(打出)과 같이 기법상 외형과 안쪽 부분의 모양이 일치하거나 또는 주조시(鑄造時) 향완의 두께·무게·금속의 소요량 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서리에서 출토된 파편은 금속향완을 모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굽안쪽면의 특징까지도 충실하게 따른 향완의 받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6)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중턱 마을에 위치한 가마로 1980년대 호암미술관에 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가마의 좌우측에 형성된 폐기물 퇴적의 조사에서 최하층인 I기층(期層)에서 최상층인 IV기층까지 4개의 층위(層位)가 확인되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유물의 제작시기에 대한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은 고려시대 초기에서 전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구체적인 개요(開窯)와 폐요(閉窯)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백자를 위주로 초기에는 소량의 청자도 함께 제작하였고 찻잔이나 일상용기를 비롯하여 제기·의식용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장기간에 걸쳐 다량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 있다.

사자장식이 있는 청자향로도 <청동사자장식사각향로>에서 유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圖1·13). 비록 몸체의 형태가 서로 다르며, 청자향로는 사자의 커다란 입을 통해 향(香)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청동향로는 뚜껑의 윗면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도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제작된 점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유물이 모두 향로라는 점과 뚜껑의 윗면에 한 마리의 커다란 사자가 장식되어 있는 점, 사자의 자세와 형태가 유사한 점 등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유물은 장식과 몸체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자향로와 청동향로 사이의 밀접한 영향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현재 유물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청동사자장식향로>와 유사한 형태의 청자향로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자향로의 사자장식과 원통형의 향로 그리고 사각형의 향로는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던 것이라는 셈이 된다. 현재 <청자사각향로>와 같은 유물이 몇 점 전하고 있으며(圖14),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제작지인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0호 가마터의 발굴에서도 사자장식 향로와 같은 둥근 몸체의 파편과 사각향로의 파편이 동시에 출토되어,⁷⁾ 이러한 종류의 향완이 동시기에 제작되었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청자향완을 비롯한 청자사각향로 등 다수가 금속향로를 모본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자와 같은 조각장식에서도 금속장식의 영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사자장식이 있는 청자향로와 같이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의 몸체도 금속기를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청자향로의 세부에 금속기의 특징이 미약하고 유사한 형태의 금속향로가 전하지 않아, 금속기가 아닌 새로운 종류의 향로에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중국 청자의 영향

고려청자는 유약의 색깔이나 형태, 장식 등에서 중국의 청자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지만, 자기가 제작되던 고려시대 초기부터 후기까지 중국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고려청자의 영향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고려 초기(初期)에 제작되던 해무리굽 완이며, 이외에 고려시대 전기(前期)의 유물 중

7)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本文編), 1997, pp. 203~204.

에도 장식기법이나 소재·구성 등에서 두 종류를 비교해 볼만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장식에서 중국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1981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10호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압인양각보상당초문완>의 파편을 들 수 있다(圖15-1). 이 완은 주둥이의 가장자리가 살짝 밖으로 벌어져 있고 기벽(器壁)이 사선을 이루며 안바닥의 중앙이 깊고 오목하게 만들어져, 전체적으로는 'V'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오목한 안바닥에는 활짝 핀 꽃이 원형을 이루며 도식적으로 장식되어 있고, 측면의 기벽에는 잎이 무성한 당초덩굴로 연결된 보상화(寶相華)의 정면과 측면 모습이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圖15-2). 장식은 일정한 문양을 미리 새겨 놓은 틀에 형태를 빚은 그릇을 포개어 눌러 장식효과를 내는 압인양각(押印陽刻, 혹은 押出陽刻·陽印刻이라고도 함)의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청자의 장식에 널리 사용되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태의 장식소재와 구성, 그리고 장식기법은 초기의 고려청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이 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물이 1987년 중국 陝西省 銅川市 黃堡鎮 耀州窯 유적에서 출토된 <靑磁印花寶相華唐草文碗片>이다(圖16).⁸⁾ 밖으로 살짝 벌어진 주둥이, 사선형 기벽, 오목한 안바닥 중앙 등 전체의 형태는 물론, 당초덩굴로 이어진 정면과 측면의 모습이 교대로 등장하는 보상화, 그리고 압인양각(중국에서는 印花라고 함)의 기법 등, 앞에서 살펴본 고려청자와 세부까지도 동일하다. 사실, 완이나 대접·접시 등에 보상화당초를 압인양각으로 장식한 청자는 송대(宋代) 11~12세기에 걸쳐 요주요에서 다량 제작된 특징적인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주요에서 출토된 완은 강진 용운리의 고려청자와 밀접한 영향관계를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의 청자와 동일한 형태·기종·장식소재·장식구성·장식기법으로 제작된 고려의 완은 당시 요주요의 청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의 봉업사지(奉業寺址) 발굴에서는 여러 점의 중국 자기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는 송대 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압인양각보상화문화형접시편>도 함께 발견되었다(圖17).⁹⁾ 봉업사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파편이 요주요지

의 발굴품 중에서도 확인되므로(圖18), 요주요의 청자가 고려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었으며 용운리와 같은 곳에서 동일한 형태와 장식의 청자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분명하다.¹⁰⁾

조각장식이 있는 고려청자 향로의 대부분은 주둥이가 가장자리에 폭이 넓은 전이 달린 원통형의 몸체, 바닥에서 몸체를 받치고 있는 괴수장식이 특징인데,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형태의 조형은 현재까지 고려시대 금속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사한 형태의 향로 몸체가 요주요에서 다수 제작되던 것으로 확인된다(圖19).¹¹⁾ 요주요 출토품의 경우 전체의 크기와 장식이 다양하지만, 원통형의 몸체·폭이 넓은 전·괴수모양의 다리 등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의 향로가 요주요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송대 초기(早期, 960~1022)에서 중기(中期, 1023~1085)로 넘어가는 11세기 전반부터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¹²⁾ 이것과는 달리 고려청자 향로의 정확한 제작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약의 색깔·받침·세부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대부분 12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청자 향로 역시 요주요와 같은 중국 북방의 요지에서 제작된 청자향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요주요와 함께 송대에 크게 번성했던 중국 河北省 磁縣 磁州窯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향로가 출토되어, 당시 중국에서는 원통형의 몸체에 괴수장식의 다리가 있는 향로가 꾸준히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圖20).¹³⁾

요주요나 자주요에서 제작된 향로와 세트를 이루는 뚜껑은 윗면 중앙이 편평하게 다듬어진 반구형이며 표면 곳곳에 작은 구멍이 투각된 것이 대부분으로(圖21), 고려의 청자향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요주요지(耀州窯址)의 향로 뚜껑 중에 고려의 조각장식 향로와 매우 유사한 파편이 출토되어 주목된다(圖22-1). 원반모양의 뚜껑 윗면에는 날개를 접은 채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오리 조각이 그것인데, 몸통의 내부에 구멍을 뚫어 뚜껑의 아래쪽에서 피어 오른 향이 입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10) 봉업사 이외에도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사'의 발굴에서도 중국 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파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p. 525).

11)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pp. 313~317.

12)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위의 책, p. 605.

13)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 文物出版社, 1997, pp. 324~326.

8) 大坂市立東洋陶磁美術館, 『耀州窯』, 1997, p. 114.

9)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p. 725.

다(圖22-2). 요주요 출토의 오리조각은 송대 중기(中期, 1023~1085)에서 만기(1086~1127)로 접어드는 11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⁴⁾ 오리의 형태는 물론 뚜껑의 구성까지도 고려청자 향완과 매우 유사하다. 한편 자주요에서도 납작한 원반 모양의 뚜껑에 사자가 머리를 측면으로 돌린 채 앞쪽 다리를 들고 앉아 있는 형태의 향로 뚜껑이 출토되었다(圖23). 사자 역시 입을 통해 향이 배출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요주요의 출토품과 소재만 다를 뿐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출토된 향로에서 고려청자 향로와 몸체·조각장식·구조 등이 유사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주요 출토품의 경우 투각장식 뚜껑과 원통형의 몸체가 11세기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오리조각과 같은 새로운 뚜껑 장식은 11세기 후반에 등장하므로, 동물조각과 원통형 몸체의 향로가 세트를 이루는 것은 11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통형의 몸체에 조각장식이 있는 고려청자 향로의 경우 대부분 12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형태나 장식·구조 등에서 중국 청자향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IV. 窯址出土品과 遺物의 裝飾

1. 요지출토 현황과 유물의 특징

전라남도 강진에는 고려시대에 청자를 제작하던 188개소의 가마가 밀집해 있으며, 대구면 용운리(龍雲里)·계율리(桂栗里)·사당리(沙堂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대구면은 바다와 접하여 있는데, 이 중 용운리는 바닷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표조사를 통하여 75개의 요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1980~1982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여 용운리 9호와 10호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10호 요지에서는 4基의 가마와 제작시기의 선후관계를 갖는 두 개의 퇴적층(10호-I층·10호-II층)이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다량의 청자파편이 출토되었다.¹⁶⁾

10호 요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활동을 벌였던 9호 요지에서도 많은 수의 청자파편이 수습되었지만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로 추정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0호 요지는 두 개의 퇴적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아래 부분인 10호-I층에서는 향로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쪽인 10호-II층에서는 몇 점의 향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품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이 조각장식 향로의 파편으로, 몸체를 받치고 있던 다리는 피수의 얼굴에 해당하는 일부만이 남아 있지만 직경이 큰 주둥이와 폭이 넓은 전·원통형의 기본적인 특징은 확인이 가능하다(圖24). 내부는 향을 넣을 수 있도록 비워져 있고 전면에 유약이 씌워져 있으며, 기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인 기벽은 전세품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유물 중에는 몸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약간 커져 밖으로 벌어진 형태와 반대로 폭이 더욱 좁아져 오므라드는 모양으로 제작된 예가 공존하고 있다(圖25·26). 따라서 출토품이나 현재 알려져 있는 유물을 종합해 보면 기벽의 기울기에 따라 몸체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적어 이 현상이 제작시기에 의한 특징인지 혹은 제작집단에 따른 차이인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10호 요지에서는 향로의 뚜껑 파편도 출토되었는데(圖27), 모두 높이가 낮고 직경이 큰 원반 모양으로 윗면과 측면이 만나는 가장자리는 사선형으로 다듬어져 있어 동시기에 제작되던 청자합의 뚜껑을 연상시킨다(圖28). 그러나 합이 뚜껑과는 다르게 윗면 중앙에 무언가 붙어 있던 흔적이 보이며, 이것을 뒤집어 안쪽면을 살펴보면 도구를 사용하여 중심부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몸체에서 피어오른 향이 뚜껑 윗면의 조각장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뚫어 놓은 것으로, 이러한 형태와 구조는 현재 전하는 향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윗면에는 어떤 형태의 조각장식이 붙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동일한 퇴적인 10호-II층에서 뚜껑과 세트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모양의 조각장식이 함께 출토되었다(圖29). 오리는 머리와 목, 그리고 몸체의 앞부분만 남아 전체의 형태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몸체에서 주둥이에 이어지는 내면을 뚫어 의도적으로 향이 빠져나가도록 고안되어 있어, 향로의 뚜껑에 장식되었던 조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오리의 바닥 부분에는 둥글게 구멍을 뚫은 듯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고려청자 중에는 오리 모양으로 제작된 연적도 몇 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파편을 향로의 장식이 아니 청자연적으로도

14)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앞의 책, pp. 541~543, 608.

15)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pp. 49~174.

16)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pp. 5~24.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종류는 모두 오리를 소재로 제작하였지만 세부의 형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연적은 모두 오리가 등과 목을 감싸고 도는 연꽃 줄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圖30), 이것과는 다르게 출토 파편은 목과 주둥이 주변에 특별한 장식흔적이 없어서 향로의 뚜껑 장식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리모양의 조각이 장식된 향로가 알려져 있어(圖25), 출토품은 향로의 장식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동물모양의 상형장식, 가장자리가 사선으로 다듬어진 원반형 뚜껑, 폭이 넓은 전과 피수모양의 다리가 있는 원통형의 몸체 등이 출토되어, 이들이 세트를 이루는 청자 조각장식 향로를 제작하였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공교롭게도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원통형의 향로와 오리모양의 조각장식은 중국 요주요지의 발굴에서도 출토되었으며, 형태나 구조, 세부의 특징이 유사하여 이들 사이에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었던 것을 뒷받침한다(圖22-1).

청자향로는 용운리뿐만 아니라 사당리에서 더욱 많은 수가 출토되거나 발견되었다. 사당리는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12세기의 비색청자를 제작하던 요지가 밀집해 있으며, 고려중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조각장식 향로는 모두 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당리에 산재해 있는 몇몇 요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서 청자기와편과 함께 여러 점의 향로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뚜껑이나 조각장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부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 피수장식의 받침파편이 확인되었다(圖31). 그러나 출토품을 통해 향로가 제작되었던 것이 입증되었을 뿐 유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자료로 볼 때 향로의 파편은 용운리 10호나 현재 알려져 있는 유물과 동일한 종류인 것은 분명하다. 1990년대에는 강진 청자요지의 지표조사가 진행되면서 사당리 7호와 8호로 명명된 요지에서 몇 점의 향로 파편이 수습되었다.¹⁷⁾ 두 요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사했던 곳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편적인 사항만이 알려져 있는데, 7호 요지에서는 향로의 뚜껑이나 조각장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수모양의 받침이 붙어 있는 몸체 저부의 초벌 파편이 수습되었다(圖32). 이 파편 역시 기존에 알려진 것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이곳에서도 제작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호 요지에서도 조각장식 향로의 파편이 수습되어(圖33), 사당리의 몇몇 가마에서 향로가 활발하게 만들어졌으며 현재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의 제작지가 강진 사당리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7호 요지에서는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와 사각형의 향로 파편이 함께 수습되었으므로 다양한 종류가 동시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圖34), 이러한 양상은 이미 용운리 10호-II층 퇴적의 출토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圖35), 강진에서는 언젠가부터 몇 종류의 향로를 특정한 용도나 수요자의 기호에 맞추어 함께 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향로를 함께 제작했다고 하는 사실은 III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진의 요지에 금속기와 중국 청자의 영향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고려청자 요지가 분포되어 있는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柳川里) 요지에서도 조각장식 향로의 파편이 발견된다.¹⁸⁾ 국립중앙박물관 수습품 중에 향로의 받침으로 추정되는 피수모양의 다리가 한 점 알려져 있으므로 조각장식 향로는 강진뿐만 아니라 부안에서도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최근 부안의 요지 발굴에서는 상형장식 향로로 추정되는 파편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¹⁹⁾ 이것은 강진과 부안의 가마가 운영되던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만, 수습된 향로의 파편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부안에서는 극소량만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조각장식 향로는 강진에서 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제작경향이 부안과 강진의 청자요지가 대비되는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 조각장식 소재의 검토

요지 출토품 중에서는 오리가 향로의 조각장식 소재로 사용되었던 파편만이 확인되었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유물에서는 더욱 다양한 동물장식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청자향로는 몇 종류가 알려져 있지만, 조각장식이 있는 향로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다른 종

17) 이외에도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의 요지 발굴에서도 상형장식 향로의 몸체가 출토되었다. 2002년 2월 22일 '발굴조사지도위원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발굴팀이 담당했던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 공개되었을 뿐, 강진 삼흥리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未刊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8) 『世界陶磁全集』18(高麗), 小學館, 1993, p. 217 참조.

19) 圓光大學校博物館,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2001. pp. 249~282.

류의 향로는 일정한 형태와 장식이 지속되는 반면에 조각장식 향로의 경우에는 유물의 수에 비하여 장식소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로의 조각장식에 사용된 소재는 동물이 대부분이며, 불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자,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원앙·오리, 그리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룡·구룡·기린이 주류를 이룬다. 이중에서도 불구(佛具)로 사용되던 향로의 의미와 부합하는 소재가 사자라고 할 수 있다. 사자는 불단을 수호하는 등의 역할이나 부처 혹은 불교를 상징하며, 청동향로와 같은 금속제 향로의 장식에 자주 등장하고(圖36), 세부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고려불화 혹은 불교관련 석조물이나 미술품에 채택되는 등 각종 공예품의 소재로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의미나 장식경향은 청자향로의 사자장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圖1), 향로에서는 앞발을 세운 채 웅크리고 앉아 오른쪽 발로 공과 같이 둥근 물체를 누르고 입을 벌려 포효하는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사자장식은 근본적으로 향로의 용도와 성격 등 불교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관련 미술품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제작된 청동인장이나 청자연적 등 다양한 종류의 장식에 사용되었다(圖37). 따라서 청자향로의 사자장식은 불교를 상징하는 직접적인 이유에서 장식되었다기 보다는 당시 널리 유행하던 소재가 채택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현재 전하는 향로의 조각장식에도 불교적인 의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동물을 소재로 한 유물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재가 원앙이다. 청자향로의 원앙은 머리에서 목까지 길게 이어지는 깃털과 하늘을 향해 직립해 있는 양쪽 날개, 그리고 예리하게 다듬은 턱 등 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며, 가는 음각선으로 세부가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다(圖26), 원앙은 고려 전기의 유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지만 12세기에 제작된 청자병이나 금속제 장신구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圖38), 고려 중기에 공예품 장식에 즐겨 사용되던 소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앙 역시 향로의 기능이나 의미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것이라기 보다는 유행하던 소재가 채택되어 장식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오리도 동일한데, 청자연적이나 청자매병 등의 장식, 혹은 장신구 등에 원앙만큼이나 즐겨 사용되던 소재였다.

한편, 원앙이나 오리와 같이 현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이외에도 어룡과 같이 실재하지 않는 소재가

조각장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圖5). 어룡의 머리는 용의 모습이지만 몸체는 물고기의 형태로, 몸체 중앙에 날개가 장식되어 있으며 머리와 몸통, 지느러미 등에 음각으로 세부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소재 역시 청자주전자나 청자 및 청동인장과 같이 동시기에 제작된 다른 종류의 유물에서도 볼 수 있다(圖39). 특히, 어룡의 형태는 향로나 주전자, 인장 등 모두가 'U'자형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정한 형태가 정형화 될 만큼 널리 선호되던 소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상 속의 동물은 구룡으로도 나타나는데, 용의 머리와 거북이의 몸체로 이루어진 조각장식도(圖40), 청자주전자나 연적에서 동일한 형태가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서(圖41), 조각장식의 소재가 특별히 불교와 관계된 것만이 선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앙이나 오리와 마찬가지로 어룡이나 구룡 역시 청자장식이나 금속기, 금속 장신구 등에 크게 유행하던 소재가 등장한 것이며, 용도나 기능에 따른 의미보다는 당시의 제작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표면장식의 구성과 변화

향로는 동물모양의 조각뿐만 아니라 뚜껑과 몸체의 표면에도 뇌문(雷文)이나 여의두(如意頭)·구름·파도어문(波濤魚文) 등 몇 가지 소재가 간략하게 음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뚜껑에는 주로 뇌문이나 여의두가 측면에 띠를 이루며 배치되고 몸체에는 파도어문이나 구름이 가득히 장식되는데, 이중에서도 문양의 형태나 구성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구름장식이다.

현재 알려져 있는 조각향로의 대부분에는 몸체 외면에 특이한 모양의 구름이 표면 가득히 그려져 있으며, 동일한 소재가 유사한 형태와 구성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구름이 장식된 향로의 경우에는 몸체 표면을 크게 네 개의 층으로 나누어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납작한 타원모양의 구름을 윤곽선에 여러 차례 굴곡을 주어 빠른 손놀림으로 그리고, 중심부분에는 몇 줄의 수직한 선을 길게 그어 마치 하늘로 피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였다(圖40). 이러한 구름의 모습이 조각장식 향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자장식이 있는 향로에서는 구름이 세 개의 층만을 이루고 있으며 윤곽선의 굴곡도 간략해지고 세부의 표현도 생략되는 등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圖1). 언뜻 보아 유사하지만 세부는 서로 다르게 장식된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차이 혹은 변화의 원인은 제작자나 제작지, 혹은 시간의 경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의 II층 퇴적에서 출토된 향로의 몸체 파편이다(圖24). 파편의 표면에도 구름이 가득 장식되어 있는데, 몸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출토된 파편으로도 음각기법을 사용하여 구름을 표면 가득 채웠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식에서 주목되는 것이 구름의 모양과 구성인데, 각각의 개체가 크고 밀집되어 있으며 더욱 복잡한 곡선으로 세부의 형태를 꼼꼼하게 묘사하여, 위에서 살펴본 향로의 장식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구름의 형태도 납작한 타원형이 아니라 윗면 중앙이 볼록한 마름모형에 더욱 가까우며, 중심부분에 그려져 있던 몇 줄의 수직선도 10호 출토품에서는 구름의 꼬리로 생각되는 사선이 나타날 뿐이어서, 세부의 표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사당리 7호와 8호 요지에서 수습된 파편에도 구름이 음각되어 있어 용운리 10호 출토품과 비교가 가능하다. 7호 요지의 파편은 몸체의 하단 일부에 해당하지만, 구름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윤곽선이 매우 간략하고 중심부분의 수직선도 수가 적고 성글게 그려져 있다(圖32). 또한 이러한 특징은 8호 요지의 파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도식화된 구름이 네 개의 층을 이루어 중첩되어 있으며 개체의 크기가 작고 윤곽선이나 세부의 묘사가 간략하게 표현되었다(圖33). 따라서 도식화된 간략한 구름장식은 7호 요지 또는 8호 요지와 같은 특정한 제작지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장식이 아니라 사당리에서 이들 요지가 운영되던 시기에 일반적인 그려지던 장식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10호 요지의 출토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용운리의 요지가 운영된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12세기에 사당리 요지의 제작활동이 진행되었으므로, 구름장식도 출토품의 파편에 나타나듯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갖고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몸체의 전면에 음각된 구름을 통해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양의 구성이나 세부의 표현이 간략화되거나 도식화되는 경향으로 변화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

V. 製作時期의 問題

서경(徐兢)이 고려를 방문했던 1123년에 사자장식이

있는 향로[狻猊出香]를 실견했던 사실을 『高麗圖經』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12세기 전반 사자와 같은 동물을 소재로 한 조각장식 향로가 제작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알려져 있는 조각장식 향로가 고려청자의 최전성기였던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부합하지만, 동물을 장식한 청자향로의 제작이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각장식 향로의 제작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터의 퇴적에서 출토된 파편을 통하여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10호 가마터의 퇴적은 파편의 퇴적 시기가 앞선 10호-I 층과 시기가 늦은 10호-II 층으로 크게 구분되며, 10호-II 층의 퇴적은 다시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 '가'에서 시작하여 '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쌓인 '다'로 구분된다.²⁰⁾ 10호-II 층 퇴적에서 오리 모양의 조각장식과 향로의 뚜껑, 몸체 등이 함께 출토되었으며(圖24·27·29), 이전에 형성된 10호-I 층에서는 한 점의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발굴보고서에서는 10호-I 층과 10호-II 층 출토 유물을 서로 비교·분석한 결과 요지별(窯址別)·층위별(層位別)로 유물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해무리굽완의 편년체계에 근거하여 퇴적의 층위에 따른 출토품의 제작시기를 10호-I 층을 10세기 전반에서 중엽으로 설정하고, 10호-II 층을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로 추정하였다.²¹⁾ 따라서 발굴보고서의 편년에 따르면, 10호-II 층 퇴적에서 출토된 조각장식 향로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곳에서 조각향로의 제작이 개시되는 시기는 빠르면 10세기 후반이며 늦어도 11세기 후반이 되는 셈이다.

한편, III장에서 중국 요주요의 청자가 고려청자의 장식이나 장식기법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지에서 당시 사용하던 요주요 청자의 파편이 실제로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용운리 10호-II 층 퇴적에서 출토된 청자 중에서 중국 요주요 청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있었으며, <청자압인양각보상당초문완>의 파편을 대표적인 예로 살펴보았다(圖15-1). 파편의 내면에 장식된 보상당초문

20)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報告書(本文編)』, 1997, p. 223.

21) 보고서에서 채택한 해무리굽완의 편년은 龜井明德, 『唐代玉璧高台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 13, 1993, pp. 86~126)가 쓴 논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 소재나 구성은 물론, 문양을 장식한 압인양각의 기법은 10호-II층 퇴적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보상당초문완>은 10호-II층 퇴적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가’퇴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된다.²²⁾ 10호-II층 퇴적의 경우 유물이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이며 퇴적을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는 ‘가·나·다’층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10호-II층의 ‘가’퇴적에서 출토된 <보상당초문완> 파편은 10세기 후반에 제작된 셈이 된다. 그러나 이 파편과 형태·장식소재·구성·장식기법 등에서 거의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耀州窯 출토 <靑磁印花寶相華唐草文碗片>의 경우 제작시기가 11-12세기로 추정되고 있어 주목된다(圖16).²³⁾ 요주요 발굴보고서에서는 발굴 당시 함께 출토된 편년자료와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이곳에서 제작되던 청자 중에 압인양각 기법과 보상당초문의 소재가 완의 내면을 장식하는 것은 송대 중기(中期, 1023~1085) 중반인 11세기 중엽부터 시작하여 이후 만기(1086~1127) 일부까지 나타났던 것으로 제작시기를 설정하고 있다.²⁴⁾ 따라서 10호-II층의 ‘가’퇴적에서 출토된 <보상당초문완> 파편의 제작시기가 10세기 후반이므로, 중국 요주요에서 제작된 동일한 청자완보다 최소한 100여년 정도 앞서 만들어졌으며 요주요의 청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고려청자의 제작에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이 유입된 이래로 고려시대 후기까지도 꾸준히 나타나며, 보상당초문이라는 소재와 장식구성, 압인양각 등의 기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의 건물지나 묘지 등의 발굴에서도 중국의 자기가 출토되고 있어,²⁵⁾ 당시 중국 자기가 고려청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용운리 10호-II층 퇴적이 형성되는 시기를 10세기 후반이라기 보다는 11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주요에서 출토된 오리조각 장식은 송대 11세기 말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용운리 10호-II층 퇴적에서 출토된 오리 모양의 향로장식이나 파편들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제작되면서 12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청자 조각장식 향로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까지 제작되었으며, 고려청자의 전성기였던 12세기에 다수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VI. 맺음말

조각장식 향로는 관련기록이 극히 드물고 현재 전하는 유물의 수가 적어, 구체적인 특징이나 변화과정을 밝히고 정확한 제작시기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요지 발굴에서 출토되거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파편을 통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식이 점차 변화되고 향로의 제작도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로의 조형을 중국 청자향로와 비교하여 검토하였는데, 몸체의 형태와 전체의 구조는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동물모양의 다양한 조각은 당시 고려에서 유행하던 금속장식 등에서 일부 채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에서 출토된 향로의 특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출토된 완과 같은 파편들은 형태나 장식소재·장식구성·장식기법 등이 중국 요주요 청자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고려와 중국 청자의 영향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둘의 비교를 통하여 청자향로의 제작시기와 강진 용운리 10호-II층 퇴적의 형성시기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요주요 출토품과 비교하면 용운리 10호-II층 퇴적은 빨라야 11세기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조각 향로는 11세기 후반부터 사당리 7호와 8호 요지가 운영되던 12세기에 걸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조각장식이 있는 청자향로는 불구(佛具)로서 뿐만 아니라 12세기 전성기 청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고려청자는 형태·장식·장식기법·제작방법 등에서 초기부터 중국청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고려 후기까지도 영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초기와 후기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기와 중기에 대한 조사와 검토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사찰이나 건물지 혹은 묘지에서 중국 송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22) 國立中央博物館, 위의 책, <표2-2. 완류의 문양> 참조.
 23)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中國中原に華ひらい名窯-耀州窯展』, 朝日新聞社, 1997, p. 114.
 24)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 文物出版社, 1998, pp. 558~562.
 25) 고려시대의 사찰이나 묘지 등에서 중국의 청자나 백자가 출토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京畿道博物館, 『奉業寺』, 2002, p. 725, 畿甸文化財研究院, 『驪州元香寺址 2次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資料』, 2001, pp. 12~13, 濟州大學校博物館, 『水精寺址』, 2000, pp. 206~208,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pp. 524~525,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 1997, p. 130.

다양한 중국 자기파편이 출토되고 있으며, 강진 등의 요지 발굴품이나 전세품 중에도 요주요 등의 출토품과 유사한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고려와 중국 청자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자기의 교역상황이나 수요성향, 제작배경 등을 추정해 볼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려청자의 특징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용운리나 사당리 요지에서는 조각장식 향로와 사각형·정형 등 다양한 종류가 함께 제작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기에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향로를 함께 다루지 못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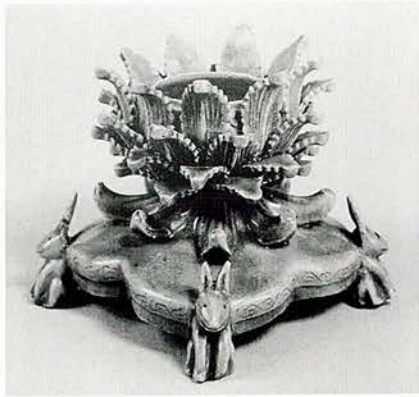
1. <청자사자자뉴개향로>
12세기, 높이 21.2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국보 60호



2. <청자투각칠보향로>
12세기, 높이 15.3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국보 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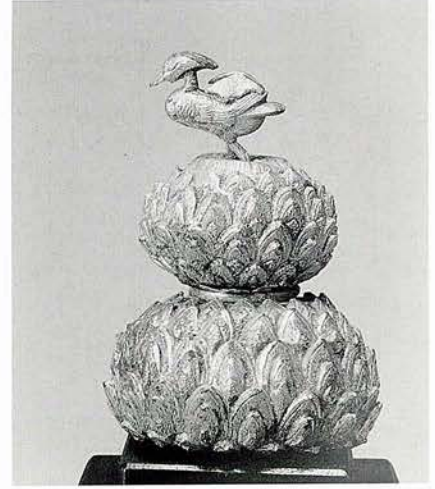
3. <청자양각연판문집시>
12세기, 높이 4.3cm
해강도자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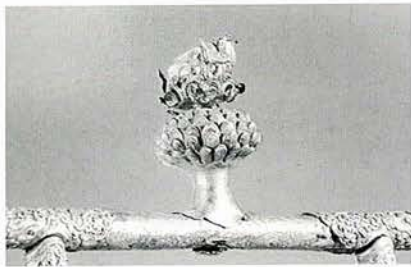
4. <청자연판식향로>
12세기, 높이 12.6cm
일본 小倉컬렉션소장



5. <청자어룡개향로>
12세기, 높이 4.3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6. <금동경가장식>
12-14세기, 높이 9.0cm
호암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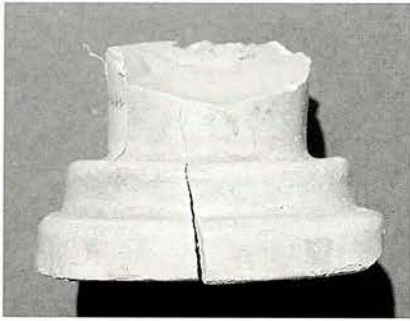
7. <금동경가장식>
12-14세기, 경가 : 높이 55.5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8. <청자향완>
12세기, 높이 13.3cm
선문대학교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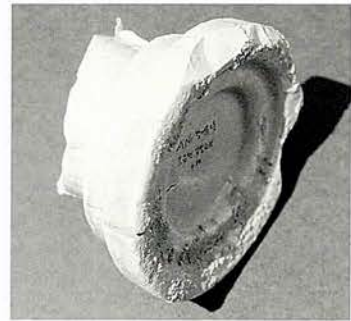
9. <청동향완>
12세기, 높이 15.2cm
성균관대학교박물관소장



10. <백자향완파편> (용인 서리 출토)
11세기, 현재높이 5.8cm
호암미술관소장



11. <청동향완>
11-14세기, 크기미상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소장



12. <백자향완파편> 밑면(용인 서리 출토)
11세기, 현재높이 5.8cm
호암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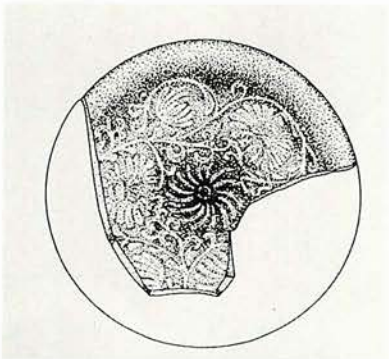
13. <청동사자장식사각향로>
12세기, 높이 29.8cm
호암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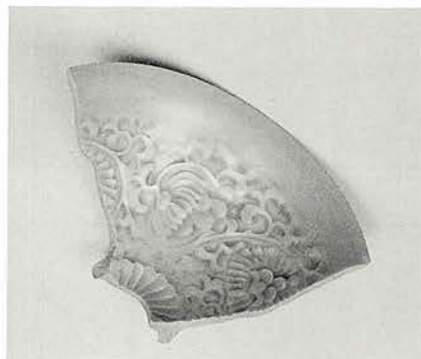
14.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
12세기, 높이 11.8cm
호암미술관소장, 보물 10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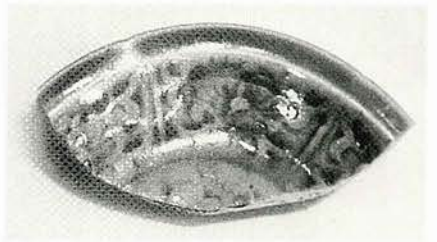
15-1. <청자양인각보상당초문완> 용운리 10호-Ⅱ층 출토
11세기, 높이 4.3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15-2. <청자양인각보상당초문완>
도면
용운리 발굴보고서 인용



16. <靑磁印花寶相華唐草文碗>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1-12세기, 높이 5.1cm
요주요박물관소장



17. <靑磁印花寶相華文접시> (봉업사지 출토)
중국 宋, 11-12세기, 높이 2.0cm
경기도박물관소장



18. <靑磁印花寶相華文접시>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086-1127년, 높이 2.0cm
요주요박물관소장



19. <靑磁五足爐>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1세기, 높이 8.5cm
요주요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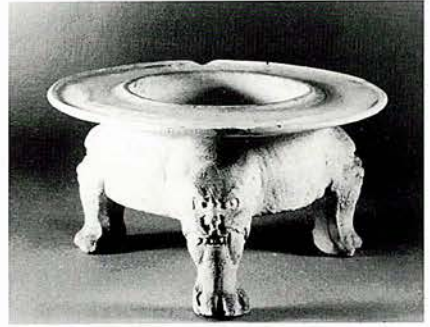
20. <靑磁熏爐> (자주요 출토)
중국 宋, 11-12세기, 높이 15.4cm
邯鄲地區文物保管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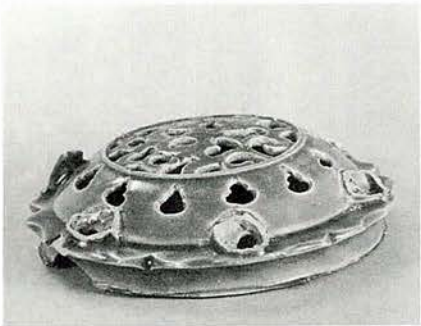
18. <青磁印花寶相華文盃>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086-1127년, 높이 2.0cm
요주요박물관소장



19. <青磁五足爐>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1세기, 높이 8.5cm
요주요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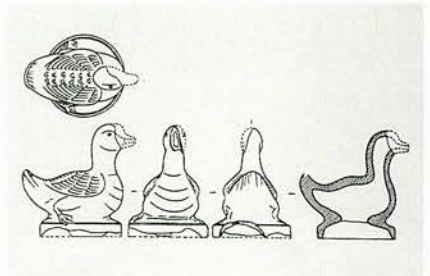
20. <青磁熏爐> (자주요 출토)
중국 宋, 11-12세기, 높이 15.4cm
邯鄲地區文物保管所



21. <청자투각향로뚜껑>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1세기, 높이 4.5cm
요주요박물관소장



22-1. <青磁鴨形熏爐蓋> (요주요 출토)
중국 宋, 11세기, 높이 7.3cm
요주요박물관소장



22-2. <青磁鴨形熏爐蓋> 圖面
요주요 발굴보고서 인용



23. <陶器獅子熏蓋> (자주요 출토),
중국 宋, 11-12세기, 높이 13.7cm
邯鄲地區文物保管所



24. <청자음각운문향로> (용운리 10호-II 층 출토)
11-12세기, 현재 높이 5.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25. <청자조각암형개향로>
12세기, 높이 20.0cm
선문대학교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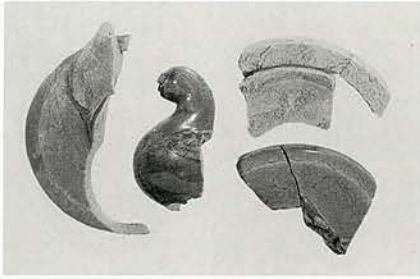
26. <청자조각원앙식개향로>
12세기, 높이 23.7cm
일본 東洋陶磁美術館소장



27. <청자향로뚜껑> (용운리 10호-II 층 출토)
11-12세기, 높이 2.1~2.5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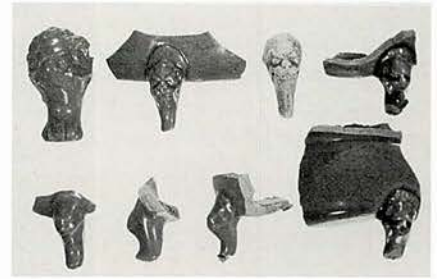
28. <青磁陰刻柳水禽文盒>
12세기, 높이 3.4cm
일본 大和文華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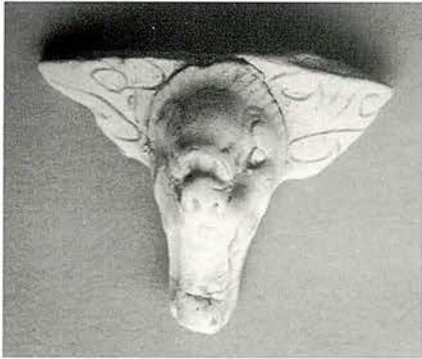
29. <청자조각압형향로장식> (용운리 10호-II층 출토)
11-12세기, 크기미상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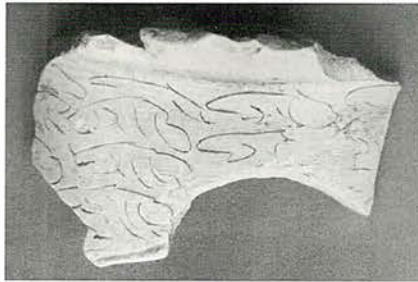
30. <청자압형연적>
12세기, 높이 8.4cm
호암미술관소장



31. <청자향로장식파편> (사당리 출토)
12세기, 크기미상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2. <청자향로파편> (사당리 7호 수습)
12세기, 크기미상
강진청자박물관소장



33. <청자향로파편> (사당리 8호 수습)
12세기, 크기미상
강진청자박물관소장



34. <청자방형향로파편> (사당리 7호 수습)
12세기, 크기미상
강진청자박물관소장



35. <청자방형향로파편> (용운리 10호-II층 출토)
11-12세기, 크기미상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6. <靑銅獸脚香爐>
11-12세기, 높이 14.3cm
경희대학교박물관소장



37. <청동사자장식인장>
11-14세기, 높이 4.8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8. <銀製鍍金鴛鴦裝飾>
11-14세기, 길이 3.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9. <청자어룡형주자>
12세기, 높이 24.3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국보 61호



40. <청자구룡개향로>
12세기, 높이 20.4cm
호암미술관소장, 보물 1027호



41. <청자구룡형주자>
12세기, 높이 17.0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靑瓷 舍利容器的 研究

韓盛旭(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I. 머리말
II. 靑瓷 舍利容器 出土 現況
III. 靑瓷 舍利容器的 性格
1. 器形
2. 文樣과 機能
3. 出土 地域과 塔內 出土 位置
IV. 맺음말

I. 머리말

舍利容器는 釋迦如來와 禪師들의 遺骨을 荼毘한 후 발생하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용기이다. 이들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佛塔과 僧塔(浮屠) 등에 안치된다. 따라서 매우 신성한 용기로 가장 우수한 재료와 뛰어난 기술을 구사하여 장엄미를 갖추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적 수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사리는 석가여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韓國, 中國, 日本 등에서는 사리 신앙이 발달되어 탑과 사리용기 제작에 많은 정성을 들였다. 이들은 문헌 기록 또는 塔誌와 주인공 등을 통해 조성 연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탑 연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출토되는 미술품을 연구하는데도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훼손의 정도에 따라 改補修를 실시하여 후대에 추가되는 유물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동시에 필요하다.

사리용기의 재질은 金을 비롯하여 銀, 銅, 金銅, 亞鉛, 鍍金, 琉璃, 瓷器, 木材, 石材, 玉 등 매우 다양하다. 石材는 蠟石을 玉은 水晶, 琉璃는 綠琉璃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아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금속과 유리는 대부분 사리용기에 사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청자를 비롯한 자기는 주로 일반적인 器種을 사리용기로 사용하였다. 사리용기는 뚜껑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편적 양식이며 殿閣形과 塔形, 六角堂形, 八角堂形, 圓形, 方形, 圓筒形, 盒, 瓶, 壺, 廚子形, 石棺形, 石槨形 등 매

우 다양하다. 이중 석관형과 석곽형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廚子形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¹⁾

금속제와 유리제 사리용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있으나²⁾ 자기로 만든 사리용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가 없었다. 자기는 황룡사 九層木塔의 예처럼 신라통일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³⁾ 청자 제작이 발달하는 고려시대에 타 사리용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청자는 翡色靑瓷라는 호칭을 얻을 정도로 미적 가치와 조형적 예술성이 매우 높은 그릇이다. 따라서 종교적 장엄미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용기로 청자가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청자 사리용기는 현재까지 고려시대 탑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청자를 비롯한 자기로 만든 사리용기의 전통은 고려 청자에 이어 조선시대의 粉靑瓷와 白瓷에 전승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자 사리용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청자 사리용기의 출토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器形과 文樣, 機能, 出土 地域, 塔內 出土 位置 등을 분석하여 청자 사리용기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靑瓷 舍利 容器 出土 現況

청자 사리용기가 출토된 곳은 강원도 2, 경기도 2, 경상도 3, 전라도 5, 충청도 1곳 등 모두 13곳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⁴⁾

1) 順天 桐華寺 三層石塔 出土 靑瓷陽刻蓮瓣文壺(圖1)⁵⁾

所在地：全南 順天市 別良面 大龍里

신라통일기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 탑으로 1988년 탑

1)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1991,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2000, 奈良國立博物館, 『仏舎利の莊嚴』, 1984, 奈良國立博物館, 『仏舎利と宝珠-釋迦を慕う心』, 2001.

2) 金禧庚, 『統一新羅時代の 金屬製 舍利具』, 『考古美術』 162·163, 韓國美術史學會, 1984, 朱英熙, 『韓國 琉璃製 舍利容器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3)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 16.

4) 학술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4·119, 文化財研究所, 『桐華寺 三層石塔 修理報告書』, 1990,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69·123.

을 보수하면서 1층 塔身 上面의 圓形舍利孔에서 출토되었다. 청자사리호는 外舍利器로 사용되어 내부에는 사리 4粒과 녹색 사리병 2개, 유리옥, 紫水晶, 金銅寶塔 등이 들어 있었다. 청자호는 뚜껑이 있는 有蓋壺로 태토가 거칠며 기포도 많아 우수한 제품은 아니다. 뚜껑은 寶珠形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손잡이 부분은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다. 몸체는 어깨부와 입술부가 내만된 壺形으로 몸통부에 仰蓮의 蓮瓣文이 매우 간략하게 양각되었다. 산화 燻造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다. 뚜껑과 몸체 모두 빙렬은 없다. 높이 11.2cm, 10세기, 桐華寺 所藏.

2) 順天 仙巖寺 東三層石塔 出土 靑瓷三耳壺(圖2)⁶⁾

所在地：全南 順天市 昇州邑 竹鶴里

1986년 탑을 해체 복원하면서 1층 塔身에서 粉靑有蓋壺와 靑銅八角圓堂形舍利龕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들 사리구는 上層 基壇 甲石 上面에 놓여 있었고 사리공은 1층 탑신 하에서 위쪽으로 구멍을 뚫었다. 청자삼이호는 뚜껑이 있는 有蓋壺로 문양은 없다. 태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유색도 고르지 않는 등 우수한 제품은 아니다. 뚜껑은 손잡이가 있는데 중앙에 一字形의 홈이 있어 몸체의 三耳와 연결하여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釉는 산화 燻造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다. 몸체는 어깨부와 입술부가 내만하는 壺形으로 회색조의 釉가 施釉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어깨에 三耳가 있는데 수평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을 통과하는 음각선이 있다. 보물 제955호. 높이 6.7cm. 10~11세기, 仙巖寺聖寶博物館 所藏.

3) 開城 佛日寺 五層石塔 出土 靑瓷壺(圖3)⁷⁾

所在地：開城市 板門郡 仙蹟里

보봉산 남록 불일동에 있는 탑을 1960년 개성 시내로 이전하면서 1·2층 塔身에서 小形塔·經典·袈裟片·녹유호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호의 뚜껑은 결실되었으며, 몸체는 어깨부와 입술부가 내만된

壺形이다. 유는 얇게 시유되었으며 산화되어 황색조의 녹색색을 띠고 있다. 뚜껑도는 높지 않으나 광택은 비교적 좋으며 균열이 없다. 이와 유사한 기형과 釉色의 청자가 중국 越州窯에서도 확인되고 있어⁸⁾ 중국산일 가능성도 있다. 높이 6.4cm. 10세기 중엽.

4) 公州 新元寺 五層石塔 出土 靑瓷壺(그림 1, 圖4)⁹⁾

所在地：忠南 公州市 鷄龍面 陽化里

鷄龍山 남쪽에 위치하며 1975년 12월 탑을 해체 복원하면서 1층 塔身 圓形舍利孔에서 출토되었다. 외사리기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에서 유리사리병과 開元通寶, 咸元平寶, 皇宋通寶 등이 출토되었다. 뚜껑은 손잡이가 있으며 또한 드림 턱이 있어 몸체의 입술과 맞도록 하였다. 몸체는 注子를 이용하였는데 注口와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어 전체 모양이 호와 유사하다.¹⁰⁾ 몸통부를 球形으로 성형한 후 구연은 직립시키고 있다. 굽은 八字形으로 매우 높다. 釉는 몸체의 경우 黃色을 띠고 있으며, 뚜껑은 산화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유가 탈락된 곳이 많다. 이 기형은 고려 청자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형으로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 전체 높이 15.2, 몸체 높이 13.2, 최대 지름 14, 뚜껑 높이 3.4, 최대 지름 5.4cm. 10~11세기. 國立公州博物館 所藏.

5)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그림 4, 圖5)¹¹⁾

所在地：全南 靈巖郡 靈巖邑 龍興里 533-1番地

1986년 탑을 복원하면서 1층 塔身 上面의 方形舍利孔에서 「統和二十七年」銘 塔誌石과 함께 출토되어 1009년(顯宗 卽位年)의 뚜렷한 하한을 알려 주고 있다. 청자 사리합는 완에 접시를 뚜껑으로 덮은 형식으로 문양은 없다. 뚜껑은 저부에 단을 준 후 곡선을 이루며 입술은 직립시키고 있다. 굽은 ㄱ자형으로 내화도를 받쳤으며 시유 후 굽바닥을 부분적으로 닦아 내었다. 유는 녹색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탈락된 곳이

6)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88·122, 鄭善宗, 「石塔」, 『仙巖寺』, 南道佛教文化研究會, 1992, pp. 125~131, 崔仁善, 「順天市の 佛教文化遺蹟」, 『順天市の 文化遺蹟』Ⅱ, 順天大學校博物館, 2000, pp. 172~174.
7) 진주농, 「佛日寺址」, 『각지 유적 정리보고』 고고학자료집 3,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1963, pp. 206~219·도판 C X X VI~C X X IX,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 1992, pp. 20·87.

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越州窯の靑磁』Ⅱ-唐かな北宋へ-, 1994, p. 7.
9)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8·120, 金永培, 「新元寺石塔 舍利具」, 『百濟文化』 10, 百濟文化研究所, 1977.
10) 보고자도 靑瓷壺로 기종을 설명하고 있어 호로 분류하였다. 順天 桐華寺와 仙巖寺의 예로 보아 호처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注口와 손잡이를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
11)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6·119, 成春慶, 「靈巖聖風寺址 五層石塔」, 『全南 佛教美術 研究』, 學研文化社, 1999.

있다. 몸체는 굽이 매우 높은 완을 사용하였는데 입술은 약간 외반되었다. 굽은八字형으로 외반되었으며 저부는 곡면으로 성형하였다. 모두 빙렬이 있다.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총높이 9.5, 몸체 높이 6.3, 입술 지름 12.0, 굽높이 1.7, 굽지름 5.3, 뚜껑 높이 4.0, 입술 지름 13.0, 굽높이 0.7, 굽지름 6.6cm.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6) 靈巖 淸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그림 5, 圖6)¹²⁾

所在地：全南 靈巖郡 靈巖邑 鶴松里

고려 전기의 탑으로 1969년 도로 확장을 위해 전남대학교로 이전하면서 上層 基壇 上面 方形舍利孔에서 출토되었다. 청자 사리함은 호에 접시를 뚜껑으로 덮은 형식으로 문양은 없다. 뚜껑은 입술이 전혀 외반되었으며, 굽은 ㄱ자형이다. 몸체는 어깨부를 내만 시킨 후 입술을 직립에 가까운 사선으로 성형한 壺形이다. 굽은八字形이다. 유색은 짙은 청색이며 문양은 없다. 뚜껑과 몸체 모두 백색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태토가 좋지 않아 유층도 고르지 못하다. 내부에는 骨粉 약 29g이 들어 있었다. 전체 높이 8.5, 뚜껑 높이 3.0, 몸체 높이 6.5, 입지름 7.0, 굽지름 5.9cm, 11세기, 全南大學校博物館 所藏.

7) 聞慶 新峴里 石塔 出土 靑瓷盒(圖7)¹³⁾

所在地：慶北 聞慶市 麻城面 新峴3里 鳳笙마을

일본에 유출된 후 1966년 5월 '한일 문화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귀환한 사리용기이다. 木製靑漆盒(內盒)과 水晶舍利壺, 木製橢圓形 받침, 香木, 織物, 曲玉, 管玉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청자 사리함은 內盒을 넣었던 외사리기로 사용하였는데 완에 접시를 뚜껑으로 덮은 형식이다. 문양은 없다. 뚜껑은 입술이 살짝 외반되었으며 빙렬이 있다. 몸체는 입술을 도톰하게 성형한 후 외반하였다. 산화 번조로 황갈색을 띠며 빙렬이 있다. 완 높이 7.9, 입지름 12.1cm. 10~11세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8) 漆谷 松林寺 五層塼塔 出土 靑瓷象嵌牡丹唐草文盒

(圖8)¹⁴⁾

所在地：慶北 漆谷市 東明面 九德洞

팔공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1959년 탑을 해체 수리하면서 相輪部의 覆鉢 아래인 5층 옥개석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8세기초에 탑이 축조된 후 고려시대에 탑을 중수하면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함 내부에서는 香木과 佛經 편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부스러진 채 들어 있었다. 뚜껑과 몸체 모두 입술부와 어깨부 경계에 단을 주어 굴곡선대가 있다. 뚜껑 윗면은 중앙에 국화문을 시문한 후 주변에 모란당초문대를 돌렸는데 모두 흑백상감으로 처리하였다. 윗면 가장자리는 백상감 蓮瓣文帶를 돌렸으며 반듯하게 내려 간 입술부에는 백상감의 雷文帶와 雲文帶를 돌렸다. 몸체는 입술부에 백상감의 뇌문대와 연관문대를 돌렸다. 보물 제325호. 높이 7.8, 입지름 18.0cm. 12~13세기.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9)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出土 靑瓷象嵌雲鶴文盒(그림 2, 圖9)¹⁵⁾

所在地：全南 順天市 松光面 新坪里 12番地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에서 출토되었다. 뚜껑의 주문양은 印花技法으로 시문하였는데, 윗면 중앙에 백상감의 큰 원을 돌리고 그 주변에 4개의 작은 원을 등간격으로 돌리고 있다. 원 안에는 흑백상감의 菊花文을 시문하였으며, 원 사이에는 雲鶴文을 시문하였다. 윗면 가장자리는 흑백상감의 蓮瓣文帶를 돌렸으며 반듯하게 내려 간 입술부에는 백상감의 雷文帶와 連珠文帶를 돌렸다. 그리고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으며, 유는 황색기가 있어 탁하다. 입술부의 유는 시유 후 닦아내었으며 일부 유가 묻쳐 있는 곳이 있다. 내외면에 빙렬이 있고 부분적으로 모래 알갱이가 드러나 있다. 입술부는 어깨부분에 시문된 연관문대의 위 아래를 맞추어 2단으로 꺾은 후 수직으로 성형하였다.

몸체의 문양은 입술부는 백상감 뇌문대와 점선문대를 돌렸으며 저부에는 흑백상감의 연관문대를 돌렸다. 중앙에 위 아래가 구분되는 꺾이는 면이 있으

12)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6·119, 崔夢龍, 「靈巖淸風寺址 石塔內 發見遺物」, 『考古美術』 116, 1972.

13)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9·120, 趙容重, 「傳聞慶 鳳棲里 出土 舍利莊嚴具 原土地 調査」, 『博物館新聞』 350, 2000.

14)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26~29·113, 金載元, 「松林寺 塼塔」, 『震檀學報』 29·30, 震檀學會, 1966, 金禧庚, 『舍利具』, 대원사, 1989, pp. 36~38.

15)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韓國美術史學』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 65·67.

며 외저부 꺾이는 부분은 성형시 깊게 깎아 내어 굴곡선대가 있다. 입술에는 드림새를 두어 뚜껑과 맞도록 하였다. 유는 부분적으로 황색기가 있어 탁하다. 유는 전면 시유하였으며 드림새는 시유 후 닦아내었다. 일부 유가 묻쳐 있는 곳이 있으며 내외면에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으나 일부 기포가 있고 모래가 섞여 있다. 뚜껑과 몸체를 함께 燔造하여 뚜껑 입술과 몸체 드림새 7곳에 검은 모래가 섞인 내화토 빚음 흔이 있다. 몸체의 굽바닥 1곳과 굽 안바닥 2곳에 커다란 규석을 받쳐 匣燔하였다. 뚜껑과 몸체를 포개 총 높이 7.7, 지름 15.2cm이다.

자정국사는 松廣寺 16국사 중 제7세 국사로 1293년(충렬왕 19)~1301년(충렬왕 27) 2월 10일까지 修禪社主로 활동하였다. 당시 수선사주의 교체(재임 만기)는 사주의 入寂 무렵이거나 입적 후이며 寺勞가 왕성하여 부도는 바로 건립되고 있다. 따라서 사리합도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문양이 印花技法을 이용하여 매우 도식화되었으며 그릇 전면에 시문하고 있어 이 후 干支銘 등에 나타나는 도식화된 문양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8호. 松廣寺聖寶博物館 所藏.

10) 驪州 神勒寺 浮屠 出土 靑瓷象嵌蓮瓣文盒(圖10)¹⁶⁾

所在地：京畿道 驪州郡 北內面 川松里

1966년 11월 부도를 이전하면서 塔身 하부와 上臺石 중간에서 출토되었다. 뚜껑은 구연부와 몸통의 꺾이는 면을 곡면으로 성형하여 상면이 약간 볼록하다. 뚜껑 윗면은 중앙에 花瓣을 백상감하고 이를 중심으로 二重圓圈文으로 문양대를 3분하여 連珠文帶와 蓮瓣文帶, 兩點文, 重圈文 등을 흑백상감하였다. 반듯하게 내려간 입술부에는 연판문대와 雷文帶를 시문하였다. 몸체는 저부와 몸통을 곡면으로 성형하였으며 굽은 대마디형이다. 문양은 흑백상감으로 시문하였다. 입술부에는 뇌문대를, 저부에는 연판문대를 시문하였으며 그 사이에 菊瓣文帶를 돌렸다. 유는 연회색을 띠며 미세한 빙렬이 있다. 뚜껑 하부와 몸체 저부의 용융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사리함이 출토된 부도가 신록사 普濟尊者 부도(보물 제228호)와 유사하며¹⁷⁾ 문양 구성이 고려 후기 청자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특히 대마디형 굽과 우점문 등은 麗末鮮初의 특징으로 14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出土 靑磁象嵌線文大椀(그림 3, 圖11)¹⁸⁾

所在地：江原道 原州市 台庄1洞 122-1番地

令傳寺址 東西三層石塔을 1919년 경복궁으로 이전하면서 西塔에서 「洪武 二十一年」銘 塔誌石과 銀製圓筒形舍利器, 銀製六角堂形小龕, 銅盒, 丸玉, 袈裟片, 香木, 皇宋通寶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지석이 함께 출토되어 1388년(禔王 14)의 뚜렷한 하한을 알려 주고 있다. 내저곡면으로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기형이다. 문양은 내측면 하단에 3줄 白象嵌線帶만을 시문하였을 뿐이다. 釉는 회청색조이며 기외면은 부분적으로 유가 흘러 내렸다. 굽 내측면이 경사를 이루는 굽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쳤으며 內底面에는 4개의 태토 빚음을 받쳐 포개 燔造하였다. 투박한 기형과 간략한 문양, 탁한 유색에서 후기 청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높이 6.2, 입지름 19.2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12) 江原道 金剛山 石塔 出土 靑瓷象嵌草花文壺

(圖12)¹⁹⁾

所在地：江原道 金剛山 附近

1958년 사리 2粒과 금동 사리탑, 수정제 사리기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靑瓷象嵌草花文壺는 외사리기로 사용되었다. 뚜껑은 백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비교적 편평한 상면 중앙과 가장자리에 2줄 선문대를 돌린 후 그 사이에 放射線文을 시문하였다. 몸체인 호는 목이 짧고 직립하며 어깨에서 직각으로 꺾여 몸통으로 이어지는 筒形이다. 몸체의 문양은 흑백상감으로 시문하였는데 편평한 어깨에는 국화문대를 인화상감하였다. 몸통은 3단으로 문양대를 구획하였는데 상단에는 뇌문대를 시문하였으며 하단에는 如意頭文帶를 돌렸다. 중앙에는 連珠文帶와 연결된 繡飾文을 4곳에 시문한 후 그 사이에 갈대로 추정되는 간략한 草花

16) 鄭良謨, 「驪州 神勒寺 逸名浮屠內 發見 舍利盒」, 『考古美術』 94, 韓國美術史學會, 1968.

17) 京畿道 『京畿道指定文化財 實測調査報告書』 上, 1996, pp. 207~208.
18)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90~91·123,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圖 76,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p. 31.
19) 金禮庚, 『舍利具』, pp. 79~80, 黃壽永, 「高麗 舍利塔과 靑瓷壺」, 『考古美術』 18, 韓國美術史學會, 1962.

文과 花圈文을 시문하였다. 유는 전면 시유하였으며 회청색을 띠고 있다. 문양은 인화기법을 이용한 간략하면서도 도식화된 것으로 이는 고려 후기의 특징적 문양 구성이다. 또한 1365~1374년에 제작된 「正陵」銘 紙筒과 문양 구성이 유사하며²⁰⁾ 분청자에서 주로 확인되는 기형이다.²¹⁾ 따라서 14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이 16.0, 입지름 7.2, 굽지름 6.7, 뚜껑 지름 7.5cm.

13) 密陽 瑩源寺址 浮屠 出土 一括靑瓷(圖13)²²⁾

所在地：慶南 密陽市 山外面 活城洞

1963년 5월 瑩源寺址에서 부도는 결실된 채 기단 아래에 설치되었던 方形石室(일명 '떡바위')에서 일괄 출토되었다. 청동 사리함을 중앙에 놓고 靑瓷象嵌柳蘆梅竹水禽梅瓶 1점과 靑瓷象嵌雲鳳文大椽 2점, 靑瓷象嵌菊花文八角椽 3점, 靑瓷象嵌菊花文圓形椽 2점 등이 각각 포개진 상태로 북쪽 벽 앞에 늘어져 있었다. 매병은 전성기의 문양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²³⁾ 이들에 비해 문양 구성이 매우 간략하며 회화성이 떨어진다. 또한 어깨부와 몸통부 사이에는 고려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 連珠文帶가 있다. 접시는 干支銘 시기(1329~1389년)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형과 문양을 갖추고 있다.²⁴⁾ 대접은 雲鳳文을 기본으로 시문하였는데 內底曲面式의 雲鳳文과 內底圓刻式의 雲鳳蓮唐草文으로 구분된다. 특히 운봉연당 초문대접은 1365~1374년에 제작된 「正陵」銘 연당초문대접과 매우 유사하다.²⁵⁾ 그러나 「正陵」銘대접은 운봉문이 생략되고 입술 당초문대도 간략한 사선화가 진행되고 있어 瑩源寺 출토품보다는 늦은 유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제작 시기가 干支銘 등장 전후부터 「正陵」銘 등장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즉, 1300~136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병 높이 30.5. 대접 입지름 19.6·20.6. 팔각접시 입지름 11.7. 원형접시 입지름 10.8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20) 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 I, 陶瓷器篇, 2000, p. 77.

21)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p. 41, 湖巖美術館 『粉靑沙器 名品展』 II, 2001, p. 54.

22)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86·122. 尹容鎮, 「瑩源寺址와 出土遺物」, 『考古美術』 35, 韓國美術史學會, 1963.

23)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磁名品特別展』, 1989, pp. 132~134.

24) 海剛陶磁美術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1991.

25) 海剛陶磁美術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p. 41.

III. 靑瓷 舍利器의 性格

1. 器形

사리용기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청자는 대부분 뚜껑이 있는 합 형태가 가장 많다. 또한 이들은 사리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청자 器種을 사리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청자 사리용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타 특수한 유형이 있다. 1유형과 2유형은 고려 전기인 10~11세기의 純靑瓷로 제작되었으며, 3유형과 4유형, 기타 유형은 12세기 이후의 象嵌靑瓷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자 사리용기는 대체로 1·2유형에서 3·4유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4유형은 사리용기의 가장 보편적 기형으로 조선시대 분청자와 백자에도 계승되고 있다. 기타 유형은 14세기에만 확인되며 각 一例만 조사되었다.

(1) 1유형

어깨부와 입술부가 내만하는 壺形 몸체와 손잡이가 있는 뚜껑을 갖는 有蓋壺이다. 이유형은 황룡사 9층목탑에서 중국 백자호와 청동호가 함께 출토되어 그 시원을 이루고 있다.²⁶⁾ 특히 뚜껑에 寶珠形 손잡이가 있는 順天 桐華寺 청자호는 인도의 탑과 양식인 스투파에서 기원한 것으로 초기에는 스투파형 사리용기가²⁷⁾ 사용되다가 점차 보주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公州 新元寺 사리기는 청자 주자를 이용하였으나 전체 형태가 호에 손잡이가 있는 뚜껑을 덮은 형태를 하고 있어 이 유형에 포함하였다. 모두 佛塔 출토품이며 동화사 사리호에 陽刻蓮瓣文이 있을 뿐 모두 순청자이다. 기능은 대체로 외사리기로 사용되었다. 사용 시기는 고려 전기인 10~11세기이다. 順天 桐華寺 三層石塔 出土 靑瓷陽刻蓮瓣文壺와 順天 仙巖寺 東三層石塔 出土 靑瓷三耳壺, 開城 佛日寺 五層石塔 出土 靑瓷壺, 公州 新元寺 五層石塔 出土 靑瓷壺 등 4곳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형은 蠟石과 木材로도 제작되고 있다.²⁸⁾

26)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 16.

27)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 65,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52~53.

28)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48·62·91.

(2) 2유형

몸체가 壺 또는 罍이며 접시형의 뚜껑을 갖추고 있는 有蓋盒이다. 모두 3곳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영암지역에서 二例가 확인되고 있다. 이 유형은 9세기대의 求禮 華嚴寺 五層石塔 土器盒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²⁹⁾ 대부분 청자에서 확인되며 금속기는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出土 銅盒이 있다.³⁰⁾ 모두 佛塔 출토품으로 문양이 없는 純靑瓷이다. 外舍利器로 사용되었으며, 사용 시기는 고려 전기인 10~11세기이다.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과 靈巖 淸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 聞慶 新峴里 石塔 出土 靑瓷盒 등 3곳에서 출토되었다.

(3) 3유형

높이가 낮은 원통형 몸체와 원통형 뚜껑을 갖춘 전형적인 합이다. 이 유형은 가장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형으로 금속제에서 기원하며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시원은 9세기 蔚州 靑松寺址 三層石塔 靑銅盒을³¹⁾ 비롯하여, 10세기의 平昌 月精寺 九層石塔 靑銅盒³²⁾, 12세기대 慶州 芬皇寺 模塼石塔 銀製盒³³⁾ 등이 있다. 이후 청자가 사용되면서 확인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재등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자기와 금속기가 함께 확인되는데 順天 松廣寺 高峰和尚(1350~1428년) 浮屠 粉靑象嵌菊花文盒·靑銅銀入絲蓮唐草文盒(사진 14)과 湖林博物館 소장 白瓷盒·靑銅盒(15세기)은³⁴⁾ 자기와 금속기가 1조를 이루고 있는 예이다. 백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합(17세기)과³⁵⁾ 梁山 通度寺 東雲堂 浮屠 鐵畫白瓷盒(1703년)³⁶⁾, 通度寺 靈瑞堂 浮屠 白瓷(19세기)³⁷⁾ 등이 있다. 금속제는 報恩 法住寺 捌相殿 靑銅舍利盒(1602년)³⁸⁾ 등이 있다. 자기와 금속제 외에도 南楊州 奉印寺와 梁山 通度寺에서 大理石 제품이 확인되고 있다.³⁹⁾ 청자 사리용기는 모두 12세기 이후의 상감청

자이며 외사리기로 사용되었다. 佛塔과 僧塔에서 함께 출토되며, 크기와 형태가 서로 유사하다. 漆谷 松林寺 五層塼塔 出土 靑瓷象嵌牡丹唐草文盒과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出土 靑瓷象嵌雲鶴文盒, 驪州 神勒寺 浮屠 出土 靑瓷象嵌蓮瓣文盒 등 3곳에서 출토되었다.

(4) 4유형

일반적인 대접으로 출토 상황이 정확하지 않아 확실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이처럼 대접 또는 발이 사리용기로 사용된 예는 조선시대에도 계속 전승되고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寶林寺 三層石塔 白瓷⁴⁰⁾와 通度寺 雪松堂 浮屠 靑畫白瓷(1745년)⁴¹⁾, 通度寺 肯坡堂 浮屠 白瓷(1914년)⁴²⁾ 등이 있다. 청자는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出土 靑磁象嵌線文大椀 一例가 있다.

(5) 기타

江原道 金剛山 石塔 出土 靑瓷象嵌草花文壺와 密陽 瑩源寺址 浮屠 出土 一括靑瓷는 각각 유일한 예로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강산 출토품은 이곳 외에는 사리용기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瑩源寺의 예는 장엄구로 사용된 청자가 일괄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탑에서 자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예는 유일하다. 영원사 출토품은 일괄 출토품으로 청자의 상대 편년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 文樣과 機能

청자 사리용기에 시문된 문양은 1유형과 2유형은 순천 동화사의 靑瓷陽刻蓮瓣文壺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양이 없다. 3유형과 4유형은 모두 상감기법으로 시문하였는데 主文樣은 牡丹唐草文과 雲鶴文, 蓮瓣文, 線文 등이 확인된다. 從屬文樣은 雲鶴文과 菊花文, 雨點文, 重圈文, 蓮瓣文帶, 連珠文帶, 菊瓣文帶, 點線文帶, 雷文帶, 雲文帶 등이 확인되고 있다. 기타 유형에서는 金剛山 出土 靑瓷象嵌草花文壺는 放射線文, 如意頭文帶, 국화문대, 연주문대, 뇌문대, 선문대, 繡

29)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 45.

30)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 91.

31)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36·115.

32)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72~73.

33)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11·112.

34)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83·127~128.

35)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106·127.

36)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88·130.

37)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91·131.

38)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 79.

39)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104·106·126~127.

40)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55·116.

41)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89·130.

42)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pp. 92·131.

飾文, 花圈文 등이 확인되고 있다. 密陽 瑩源寺 출토품은 靑瓷象嵌柳蘆梅竹水禽梅瓶과 靑瓷象嵌雲鳳文大栝, 靑瓷象嵌雲鳳蓮唐草文大栝, 靑瓷象嵌菊花文八角栝匙, 靑瓷象嵌菊花文圓形栝匙 등이 출토되었는데 종속 문양은 연관문대와 여의두문대, 당초문대, 연주문대, 선문대, 국화문 등이 있다. 이들 청자 사리용기에 시문된 문양은 청자 사리용기들이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시문하고 있어 불교 이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보편적 문양의 그릇을 사리용기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자는 사리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용도의 청자는 없으며 기능을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사리용기는 外舍利器로 확인되고 있다. 原州 令傳寺 普濟尊者 浮屠 靑磁象嵌線文大栝은 타 사리용기의 뚜껑 또는 받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밀양 영원사 출토 일괄 청자는 내용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나 莊嚴具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용기는 기종과 크기에 따라 내부에 넣는 내용(구슬, 곡식, 경진, 탑 등)과 量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용물이 腐蝕되거나 劣化되어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리용기 내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함께 실시되어야 하겠다.

3. 出土 地域과 塔內 出土 位置

청자 사리용기가 출토된 지역은 강원도 2, 경기도 2, 경상도 3, 전라도 5, 충청도 1곳 등 모두 13곳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5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이 확인되는 1·2·3유형 모두가 전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자 제작이 왕성하였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청자가 발전하면서 사리용기로도 많이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청자 문화의 중심지인 강진과 인접한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자 사리용기가 시기별로 출토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塔內 출토 위치는 9곳이 확인되는데 1층 塔身 上面이 3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基壇 下面 石室·上層 基壇 上面·上臺石과 塔身 중간·1층 塔身 下面·1층과 2층 塔身·5층 屋身 上面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1층과 관계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1층 上面에 사리공이 있는 예는 聞慶 內化里 三層石塔과 光州 長雲洞 五層石塔, 南原 萬福寺址 五層石塔, 長興 金藏寺 石塔 등에서도 확인된다.

IV. 맺음말

舍利容器는 地域과 時代, 因緣, 所依經典, 材質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고려시대는 청자의 발달로 香罏과 淨瓶 등 매우 많은 청자가 불교 장엄물로 장식되었다. 특히 청자는 사리용기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들의 器形과 文樣, 機能, 出土 地域, 塔內 出土 位置 등의 분석을 통해 청자 사리용기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청자 사리용기는 뚜껑이 있는 합 형태가 대부분으로 사리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기타 특수한 유형이 있다. 1유형과 2유형은 10~11세기의 純靑瓷로 제작되었으며 3유형과 4유형은 12세기 이후의 象嵌靑瓷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1·2유형에서 3·4유형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4유형은 사리용기의 가장 보편적 기형으로 조선시대 분청자와 백자에도 계승되고 있다. 기타 유형은 14세기에만 확인되며 각 一例만 알려져 있다.

文樣은 1유형과 2유형은 順天 桐華寺 靑瓷陽刻蓮瓣文壺를 제외하고는 문양이 없다. 3유형과 4유형은 상감기법으로 施文하였는데 主文樣은 梅竹水禽文과 牡丹唐草文, 雲鶴文, 雲鳳文, 雲鳳蓮唐草文, 菊花文, 草花文 등이 확인된다. 從屬文樣은 蓮瓣文과 雲鶴文, 菊花文, 唐草文, 如意頭文, 連珠文, 雷文, 雲文, 雨點文, 線文, 點線文, 放射線文 등이 있다. 이들은 청자 사리용기가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문양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양은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있어 불교 이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보편적 문양의 그릇을 사리용기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자 사리용기의 기능은 대부분 내부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 外舍利器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密陽 瑩源寺 출토 일괄 청자는 내용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으나 莊嚴具 역할을 위해 埋納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 사리용기의 출토 지역은 강원도 2, 경기도 2, 경상도 3, 전라도 5, 충청도 1곳 등 모두 13곳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은 5곳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청자 제작이 발달하였던 강진과 인접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자 사리용기의 塔內 출토 위치는 9곳이 확인되는데 1층 塔身과 관련된 곳이 5곳으로 가장 많다.

고려시대는 청자의 비약적 발달로 청자가 사리용기로 매우 많이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알려진 예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조사가 진행된다면 고려시대 사리용기와 사리장치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자 편년을 연구하는데 매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청자 사리용기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청자 이외에도 金完燮 舊所藏 陶製淡青色舍利盒과⁴³⁾ 水鍾寺 浮屠 出土 中國 龍泉窯產 靑瓷有蓋壺(보물 제259호),⁴⁴⁾ 李成桂가 發願하여 제작한 金剛山 月出峰 石函 出土 白瓷鉢·白瓷香爐(1391년; 恭讓王3),⁴⁵⁾ 攄持寺 塔 出土 綠釉舍利壺(1007년; 穆宗10),⁴⁶⁾ 兜率寺址 五層石塔 出土 綠釉舍利瓶(1031년; 顯宗22)⁴⁷⁾ 등 瓷器로 제작한 사리용기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43)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一切如來心 秘密 全身舍利寶篋 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 2, 中央大學校, 1973.

44)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84·121~122.

45)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p. 92~93·123.

46)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p. 232.

47) 朝鮮總督府博物館, 『博物館陳列品圖鑑』 13, 1939.

靑瓷 舍利容器 出土 現況

사진	그림	출토지	이름	출토위치	기능	형식	시대	출전
1	·	順天 桐華寺 三層石塔	靑瓷陽刻蓮瓣文壺	1층 塔身 上面	외사리기	1	10세기	⑧69쪽.
2	·	順天 仙巖寺 東三層石塔	靑瓷三耳壺	1층 塔身 下面	·	1	10~11세기	①88쪽.
3	·	開城 佛日寺 五層石塔	靑瓷壺	1·2층 塔身	·	1	10세기 중엽	⑤
4	3	公州 新元寺 五層石塔	靑瓷壺	1층 塔身 上面	외사리기	1	10~11세기	②
5	1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靑瓷盒	1층 塔身 上面	외사리기	2	1009년	③
6	2	靈巖 淸風寺址 五層石塔	靑瓷盒	上層 基壇 上面	외사리기	2	11세기	①76쪽, ⑦
7	·	開慶 新峴里 石塔	靑瓷盒	·	외사리기	2	10~11세기	①79쪽.
8	·	漆谷 松林寺 五層塔	靑瓷象嵌牡丹唐草文盒	5층 屋身 上面	외사리기	3	12~13세기	①29쪽.
9	4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靑瓷象嵌雲鶴文盒	·	외사리기	3	1301년	⑩
10	·	驪州 神勒寺 浮屠	靑瓷象嵌蓮瓣文盒	上臺石과 塔身 中間	외사리기	3	14세기 후반	⑥
11	5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靑磁象嵌線文大椽	·	·	4	1388년	①90쪽, ④
12	·	江原道 金剛山 石塔	靑瓷象嵌草花文壺	·	외사리기	기타	14세기 후반	⑨
13	·	密陽 臺源寺址 浮屠	一括靑瓷	基壇 下面 石室	莊嚴具	기타	14세기	①86쪽.

* 사진과 그림은 출전에서 인용하였다.

- ①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1991.
- ② 金永培, 「新元寺 石塔 舍利具」, 『百濟文化』 10, 百濟文化研究所, 1977.
- ③ 成春慶,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全南 佛教美術 研究』, 學研文化社, 1999.
- ④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p. 31.
- ⑤ 전주농, 「佛日寺址」, 『각지 유적 정리보고』 고고학 자료집 3,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과학원출판사, 1963, pp. 206~219 · 도판 C X X VI ~ C X X IX.
- ⑥ 鄭良謨, 「驪州 神勒寺 逸名浮屠內 發見 舍利盒」, 『考古美術』 94, 韓國美術史學會, 1968.
- ⑦ 崔夢龍, 「靈巖 淸風寺址 石塔內 發見遺物」, 『考古美術』 116, 韓國美術史學會, 1972.
- ⑧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2000.
- ⑨ 黃壽永, 「高麗 舍利塔과 靑瓷壺」, 『考古美術』 18, 韓國美術史學會, 1962.
- ⑩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韓國美術史學』 232, 韓國美術史學會,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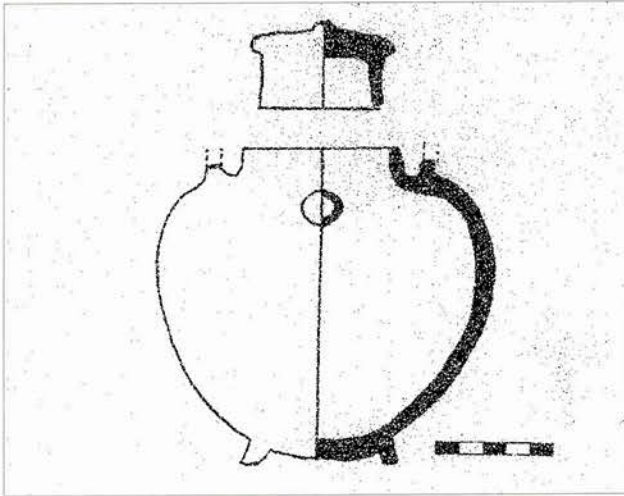


그림1. 公州 新元寺 五層石塔 出土 靑瓷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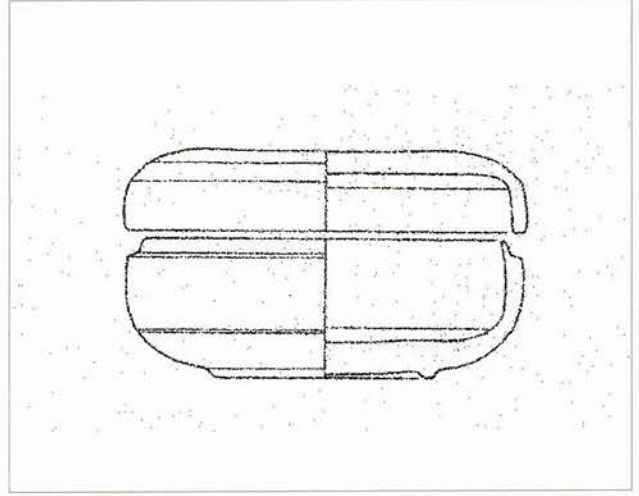


그림2.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出土 靑瓷象嵌雲鶴文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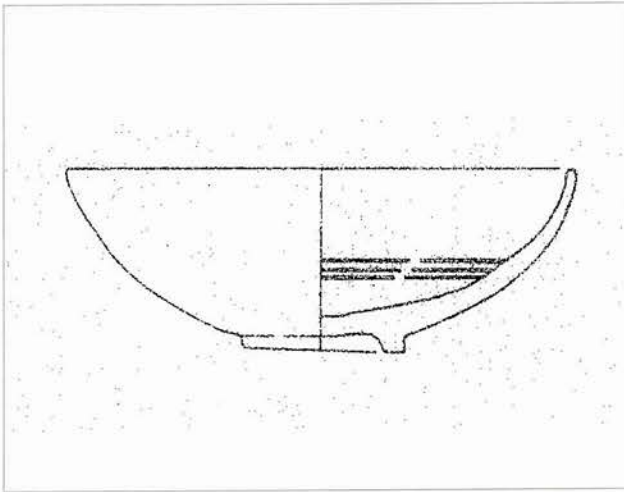


그림3.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出土 靑磁象嵌線文大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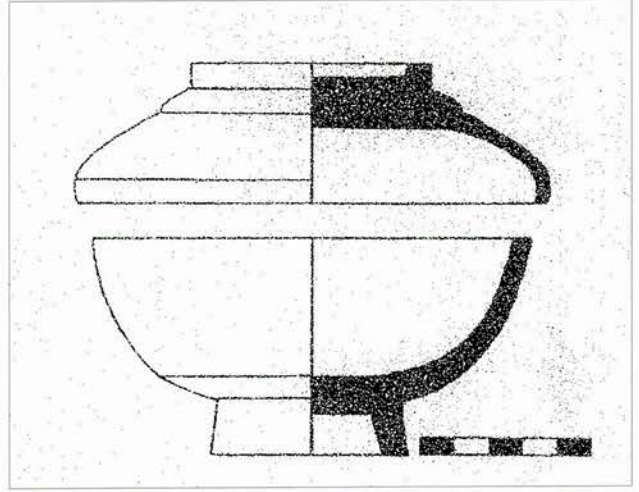


그림4.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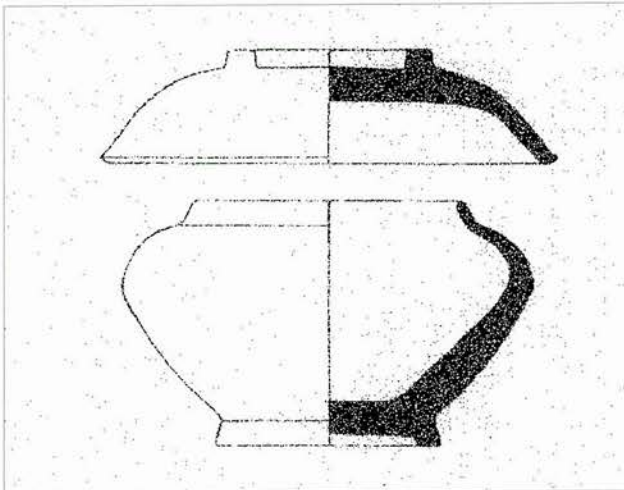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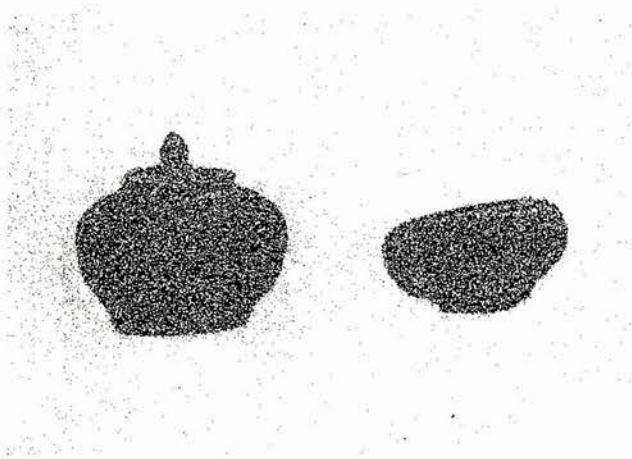
그림5. 靈巖 淸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靑瓷盒



1. 順天 桐華寺 三層石塔 出土 舍利具



2. 順天 仙巖寺 東三層石塔 出土 青瓷三耳壺



3. 開城 佛日寺 五層石塔 出土 青瓷壺



4. 公州 新元寺 五層石塔 出土 青瓷壺



5. 靈巖 聖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青瓷盒



6. 靈巖 清風寺址 五層石塔 出土 青瓷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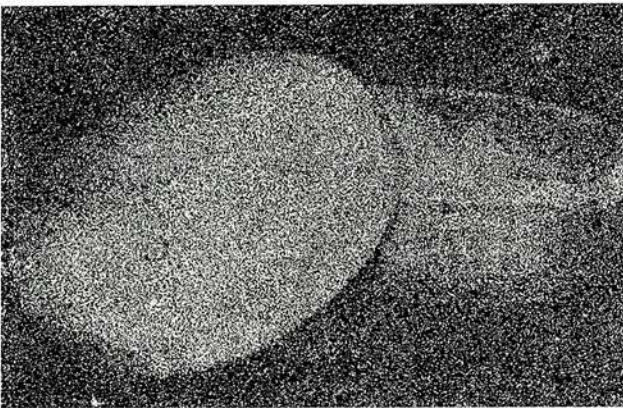
7. 聞慶 新峴里 石塔 出土 青瓷盒



8. 漆谷 松林寺 五層塔塔 出土 青瓷象嵌牡丹唐草文盒



9.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出土 青瓷象嵌雲鶴文盒



10. 驪州 神勒寺 浮屠 出土 青瓷象嵌蓮瓣文盒



11.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 浮屠 出土 青磁象嵌線文대집



12. 江原道 金剛山 石塔 出土 青瓷象嵌草花文壺



13. 密陽 瑩源寺址 浮屠 出土 舍利具



14. 順天 松廣寺 高峰和尚 浮屠 出土 舍利盒

전 시 유 물

1. 청자나한상(靑磁羅漢像)
高麗時代 13世紀
高 37.4cm 頭高 13.0cm 肩幅 21.5cm
全羅南道 咸平郡 龍泉寺 出土
全南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Araha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 청자나한상(靑磁羅漢像)
高麗時代 13世紀
高 20.7cm 頭高 8.0cm 底徑 10.2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東垣 寄贈品)
Celadon Araha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3. 청자불두 편(靑磁佛頭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9.4cm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Head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4. 청자불두 편(靑磁佛頭 片)
高麗時代 12~13世紀
現高 (左) 7.0cm (右) 8.3cm
全羅南道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左) 光州無等窯展示館 所藏
(右)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Celadon Head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2~13th century
5. 청자불신 편(靑磁佛身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18.0cm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ody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6. 청자불신 편(靑磁佛身 片)
高麗時代 12~13世紀
現高 18.2cm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出土
個人 所藏
Celadon Body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2~13th century
7. 청자보살두 편(靑磁菩薩頭 片)
高麗時代 12~13世紀
現高 6.6cm
全羅南道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Celadon Head of Buddha Bodhisattva slice
Goryeo Dynasty 12~13th century
8. 청자나한두 편(靑磁羅漢頭 片)
高麗時代 12~13世紀
現高 (左) 4.0cm (右) 6.0cm
全羅南道 康津郡 道岩面 龍穴寺址 出土
(左) 個人 所藏 (右)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Celadon Head of Arahan slice
Goryeo Dynasty 12~13th century
9. 소조불두 편(塑造佛頭 片)
10~14世紀
現高 (左) 8.8cm (右) 9.7cm
全羅南道 光州市 無等山 元曉寺 出土
國立光州博物館 所藏
Clay Head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0~14th century
10. 청자나한두 편(靑磁羅漢頭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左) 5.7cm (中) 8.0cm (右) 6.1cm
(左·右) 個人 所藏
(中)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 Celadon Head of Arahan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11. 청자불신 편(靑磁佛身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左) 5.2cm (右) 9.3cm
(左) 個人 所藏 (右)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ody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12. 청자불상 편(靑磁佛像 片)
高麗時代 12~13世紀
現高 9.5cm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2~13th century
13. 청자불신 편(靑磁佛身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9.0cm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ody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14. 청자불신 편(靑磁佛身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11.5cm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ody of Buddha slice
Goryeo Dynasty 13th century
15. 청자음각동자문매병뚜껑 편
(靑磁陰刻童子文梅瓶 蓋 片)
高麗時代 12世紀
高 4.6cm
本館 所藏(曹有福 寄贈品)
Celadon Maebyong Cover slice,
with incised child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16. 청자양인각동자문완 편
(靑磁陽印刻童子文碗 片)
高麗時代 12世紀
現高 3.6cm 底徑 4.2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slice with raised children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17. 청자양인각동자문접시 편
(靑磁陽印刻童子文접시 片)
高麗時代 12世紀
現高 2.6cm 底徑 7.4cm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當23號 靑磁窯址 調査品
本館 所藏
Celadon Dish slice with raised children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18. 청자철화「청림사」명화병
(靑磁鐵畫「靑林寺」銘花瓶)
高麗時代 11~12世紀
高 12.0cm 口徑 6.1cm 底徑 7.7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Vase with underglaze iron painted in
inscription of "Chung Rim Sa"
Goryeo Dynasty 11~12th century
19. 청자상감범자향완(靑磁象嵌梵字香碗)
高麗時代 13世紀
高 27.7cm 口徑 24.6cm
海東古陶磁研究所 所藏
Celadon Incense Burner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0. 청자상감범자향완 편(靑磁象嵌梵字香碗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11.0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Incense Burner slice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1. 청자상감범자향완 편(靑磁象嵌梵字香垸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7.9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Incense Burner slice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2. 청자상감범어 편(靑磁象嵌梵語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3.5cm 底徑 7.5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Incense Burner slice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3. 청자상감범어 편(靑磁象嵌梵語 片)
 高麗時代 13世紀
 現高 (左上) 1.8cm (左下) 5.4cm
 現徑 (右上) 7.2cm (右下) 7.5cm
 (左下) 全南 康津 大口面 沙堂23號 靑磁窯址 調查品
 (左上·左下) 本館 所藏
 (右上·左下) 光州無等窯展示館 所藏
 23-1 現徑 5.2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Celadon Incense Burner slice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24. 청자완(靑磁碗)
 高麗時代 10世紀
 (左) 高 5.6cm 口徑 16.1cm 底徑 6.5cm
 (右) 高 5.7cm 口徑 16.4cm 底徑 6.5cm
 個人 所藏
 Celadon Bowl
 Goryeo Dynasty 10th century
25. 청자완(靑磁碗)
 高麗時代 10世紀
 高 6.2cm 口徑 15.8cm 底徑 5.8cm
 本館 所藏
26. 백자완(白磁碗)
 高麗時代 10世紀
 高 6.3cm 口徑 15.2cm 底徑 5.0cm
 本館 所藏
 White Porcelain Bowl
 Goryeo Dynasty 10th century
27. 청자완(靑磁碗)
 高麗時代 12世紀
 高 6.2cm 口徑 16.6cm 底徑 4.2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Goryeo Dynasty 12th century
28. 청자양각연판문완(靑磁陽刻蓮瓣文碗)
 高麗時代 10~11世紀
 高 5.6cm 口徑 10.2cm 底徑 4.1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0~11th century
29. 청자양각연판문완(靑磁陽刻蓮瓣文碗)
 高麗時代 10~11世紀
 (左) 高 7.0cm 口徑 15.2cm 底徑 6.1cm
 (右) 高 6.4cm 口徑 16.0cm 底徑 5.3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0~11th century
30. 청자양각연판문대접(靑磁陽刻蓮瓣文대접)
 高麗時代 12世紀
 高 7.8cm 口徑 17.0cm 底徑 7.1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제공
31. 청자양각연판문대접(靑磁陽刻蓮瓣文대접)

- 高麗時代 12世紀
高 4.8cm 口徑 16.5cm 底徑 6.6cm
本館 所藏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제공
32. 청자양인각연당초문접시
(靑磁陽印刻蓮唐草文접시)
高麗時代 12世紀
高 3.4cm 口徑 14.7cm 底徑 9.6cm
本館 所藏(윤대호 寄贈品)
Celadon Dish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33. 청자양인각연관문화형접시
(靑磁陽印刻蓮瓣文花形접시)
高麗時代 12世紀
高 2.8cm 口徑 14.2cm 底徑 8.5cm
本館 所藏(조혜경 寄贈品)
Celadon Foliate Dish with rais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34. 청자양각연관문광구병(靑磁陽刻蓮瓣文廣口瓶)
高麗時代 10~11世紀
高 26.9cm 底徑 9.0cm
本館 所藏(이영탄 寄贈品)
Celadon Bottle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0~11th century
35. 청자음각연관문표형소병(靑磁陰刻蓮瓣文瓢形小瓶)
高麗時代 11世紀
本館 所藏
高 7.8cm 口徑 0.9cm 底徑 2.5cm
Celadon Gourd-shaped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36. 청자양각연관문유병(靑磁陽刻蓮瓣文油瓶)
高麗時代 11世紀
高 6.6cm 口徑 3.1cm 底徑 5.2cm
本館 所藏
Celadon Oil-Bottle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37. 청자음각연관문유병(靑磁陰刻蓮瓣文油瓶)
高麗時代 11世紀
高 4.8cm 口徑 2.8cm 底徑 3.8cm
本館 所藏(황정은 寄贈品)
Celadon Oil-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38. 청자음각연화문병(靑磁陰刻蓮花文瓶)
高麗時代 12世紀
高 37.3cm 口徑 5.4cm 底徑 8.9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39. 청자양각연관문주자(靑磁陽刻蓮瓣文注子)
高麗時代 11世紀
本館 所藏
高 22.0cm 口徑 4.8cm 底徑 10.8cm
Celadon Pitcher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40. 청자음각연관문주자(靑磁陰刻蓮瓣文注子)
高麗時代 11世紀
高 22.5cm 口徑 4.9cm 底徑 9.6cm
本館 所藏
Celadon Pitcher with incised lotus petal and inlaid arabesque design
Goryeo Dynasty 11th century
41. 청자퇴화연관문주자(靑磁堆花蓮瓣文注子)
高麗時代 12世紀
總高 17.0cm 高 14.0cm 口徑 5.2cm 底徑 9.1cm
蓋高 4.3cm 蓋徑 3.4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Celadon Pitcher with painted white slip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2. 청자음각연화문과형주자와 승반
 (靑磁陰刻蓮花文瓜形注子及承盤)
 高麗時代 12世紀
 總高 21.0cm (注子) 高 18.3cm 口徑 4.2cm 底徑 8.7cm
 蓋高 4.4cm 蓋徑 3.1cm
 (承盤) 高 5.9cm 口徑 17.8cm 底徑 9.4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Pitcher and Bowl with incised lotus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3. 청자음각연화문과형매병 편
 (靑磁陰刻蓮花文瓜形梅瓶 片)
 高麗時代 12世紀
 現高 32.8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Maebyong slice with incised lotus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4. 청자음각연화문매병(靑磁陰刻蓮花文梅瓶)
 高麗時代 12世紀
 高 33.3cm 口徑 5.8cm 底徑 12.7cm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Celadon Maebyong with incised lotus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5. 청자정병(靑磁淨瓶)
 高麗時代 12世紀
 高 31.0cm 口徑 1.3cm 底徑 9.0cm
 海剛陶磁美術館 所藏
 Celadon Kundica Bottle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6. 백자정병(白磁淨瓶)
 高麗時代 12世紀
 高 26.8cm 口徑 1.4cm 底徑 9.2cm
 個人 所藏
 White Porcelain Kundica Bottle
 Goryeo Dynasty 12th cent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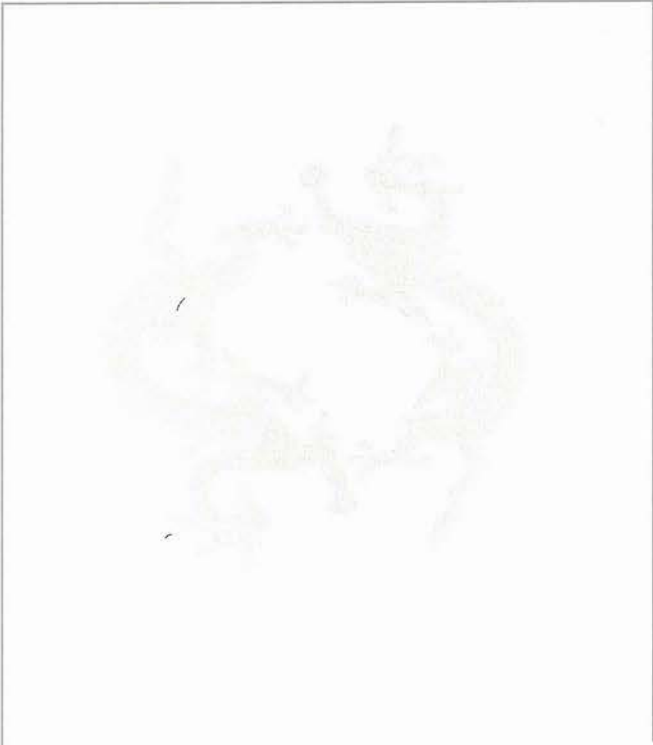
47. 청자음각운학문정병(靑磁陰刻雲鶴文淨瓶)
 高麗時代 12世紀

高 44.5cm 幅19cm
 海東古陶磁研究所 所藏
 Celadon Kundica Bottle with incised clouds and cranes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48. 청자연화문화형접시 도범
 (靑磁蓮花文花形접시 陶范)
 高麗時代 13世紀
 高 1.9cm 上徑 6.5cm 下徑 7.5cm
 本館 所藏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11號 靑磁窯址 調査品
 Goryeo Dynasty 13th century

참 고 유 물

1. 청자범종 편(靑磁梵鐘 片)
 高麗時代 12世紀
 現高 (右下) 9.1cm×9.6cm
 全羅北道 扶安郡 柳川里 出土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Buddhist Temple Bell slice
 Goryeo Dynasty 12th century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사진 제공
2. 청자상감범어접시(靑磁象嵌梵語접시)
 高麗時代 13世紀
 高 5.0cm 구경 17.8cm 저경 7.0cm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
 Celadon Dish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skrit
 Goryeo Dynasty 13th century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사진 제공



전 시

기 획 : 최형택, 이용희, 최선일
진 행 : 최선일, 권형윤, 박제진
 마광원, 손용호, 황문희
 구보다 에쓰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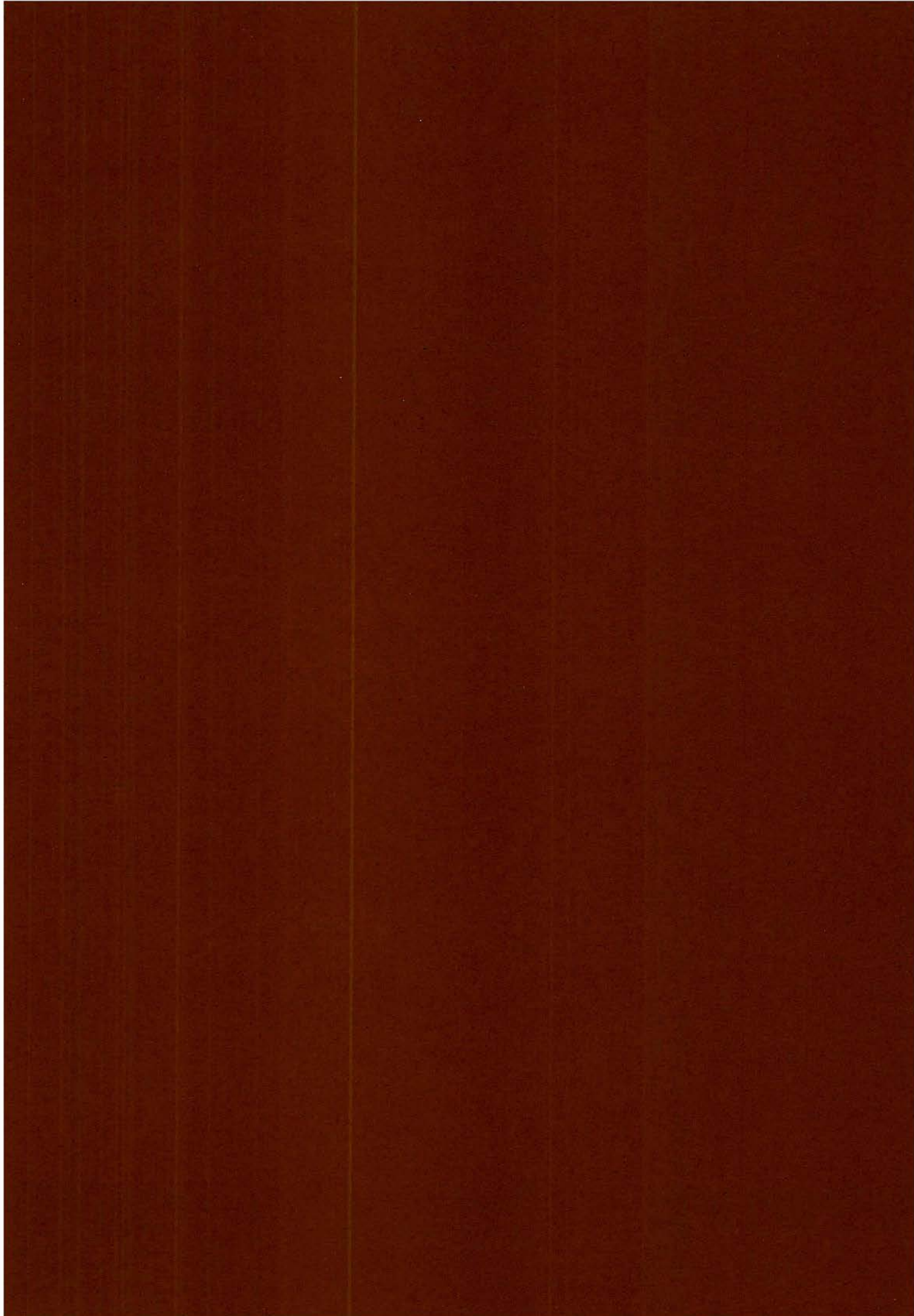
도 록

도판촬영 : 김광섭 스튜디오
편 집 : 현기획

高麗靑磁와 宗教

2002년 7월 발행
발 행 :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17
 5 2 7 - 8 7 2
 TEL 061-432-3225

기 획 : 현기획 TEL 02-953-2229



Special Exhibition
– Goryeo Celadon & Religion –



2002
Gangjin Celadon Material Museum